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AGAZINE KOICA

2023 VOL.4

커버스토리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특별 인터뷰

기획 특집
한·미·일 ODA 협력 시대: 가나 보건 ODA 사업

기고
USAID 미셸 수밀라스: 파트너십을 위한 중요한 순간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파트너십


커버스토리

서문

04 연쇄적인 글로벌 위기, 파트너십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커버스토리

06 "글로벌 위기 해결, ODA 역량 강화, 보편적 가치 실현"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특별 인터뷰

기획 특집

10 ODA도 한·미·일 공조, 가나에 대규모 보건 사업 추진
가나 정부의 2030 보편적 건강보장 목표 달성과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3자 협력

12 삼각협력이 이룬 중남미 3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코스타리카 삼각협력을 통한 중미 3국 건조회랑 지역
시설원예기술 역량 강화 사업

14 몽골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남녀평등 참여를 향한 노력
이명신 UNDP 몽골 국가사무소 커뮤니케이션 분석가

16 급증하는 AMR, 강력한 보건 파트너십으로 대응
WHO 항생제 내성(AMR) 등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대응능력 향상 사업

18 코이카와 세계은행이 바라보는 사업평가란?
코이카-세계은행(World Bank) 영향평가 워크숍

20 유·무상 ODA를 통한 우즈벡 '아동 의료의 질' 강화
코이카 아동병원 의료 인력 역량 강화 사업

22 파트너십을 위한 중요한 순간
미셸 수밀라스 미국국제개발처(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

24 "악화되는 난민 문제, 국제사회가 반드시 협력해야"
전혜경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27 세계 개발협력기관 '믹타 협의회'서 다자간 협력방안 논의
제3차 믹타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28 두뇌발달 프로그램으로 '느린발달아이' 60만 명 치료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우수사업 성과: 두브레인

30 캄보디아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선도하는 우리 기업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우수사업 성과: (주)베리워즈

32 휴대용 수질측정기로 개도국 식수 문제 해결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우수 사업 성과: 파이퀀트

34 ODA도 시민사회단체(CSO) 파트너십으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우수 사업 성과


기획 특집


기획 특집



ODA 국제회의


사업 리뷰

36 초국가적 공조와 KDRT의 역할 더욱 중요해질 것
캐나다 산불 현장에 투입된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38 KDRT 의료팀 역할의 이해
정민규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의료지원팀 대원

40 FGI와 대고객 직접 소통 채널로 고객 만족도 높여
유기종 코이카 국민소통센터장

42 ODA 사업과 혁신제품이 일군 동반성장의 힘
코이카-조달청 협력 사업

44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과 상생 실현하는 키워드 '나눔'
코이카 사회공헌활동

ODA 국제회의

45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
제16회 서울ODA국제회의

사업 리뷰

48 고품질 종자 보급으로 우간다 농업생산성 강화
주요 채소작물 종자 가치사슬 강화 사업

50 수확-운송-판매까지 네팔 농업 원스톱 지원
네팔 UNDP 과일 및 채소 가치사슬 개발 사업

52 '난민을 품은 땅' 요르단에 심은 희망과 상생의 씨앗
요르단 시리아 난민 밀집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3개 학교 건립 사업

54 통합적 지역개발 위한 교육·보건·환경 삼각 지원
네팔 인프라 구축 ODA 사업

56 지역농산물 잘만 활용하면 농민들은 '방긋' 학생들은 '쑥쑥'
캄보디아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 사업

인터뷰

59 "한국 발전의 모든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학위연수 사업 박사과정 연수생 3인 인터뷰

62 코이카와 함께 성장한 미래 리더들과의 만남
리턴 프로그램

코이카 직원 에세이

64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사람들
김석범 코이카 중동북아프리카 과장

기관 소식

66 KOICA NEWS 모아보기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인터뷰

연쇄적 글로벌 위기, 파트너십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수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튀르키예 지진, 기후변화의 위기감을 고조시킨 캐나다 대형산불, 그리고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국제사회를 긴장시킨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된 한 해였습니다.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첨예하게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위기는 더 이상 그 국가만의 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 상황은 주변국으로 빠르게 전파돼 연쇄적인 위기를 촉발하고,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식량, 의료, 교육, 난민 등 각 분야에서 조속히 협력해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만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MAGAZINE KOICA〉의 주제는 '파트너십'으로 정했습니다. 코이카는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2023~2027)」 4대 전략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글로벌 파트너, 민간기업,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한정된 ODA(공적개발원조)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개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 유니세프(UNICEF), 국제이주기구(IOM) 등 여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뿐 아니라,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HDP Nexus적인 관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아울러 가나와 태평양 도서국 등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공여기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등과 손잡고 믹타(MIKTA) 개발협력 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선진·신흥 공여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혁신 기술 개발 및 실증, 해외 진출을 적극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유·무상 ODA 연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성과들은 이번 〈MAGAZINE KOICA〉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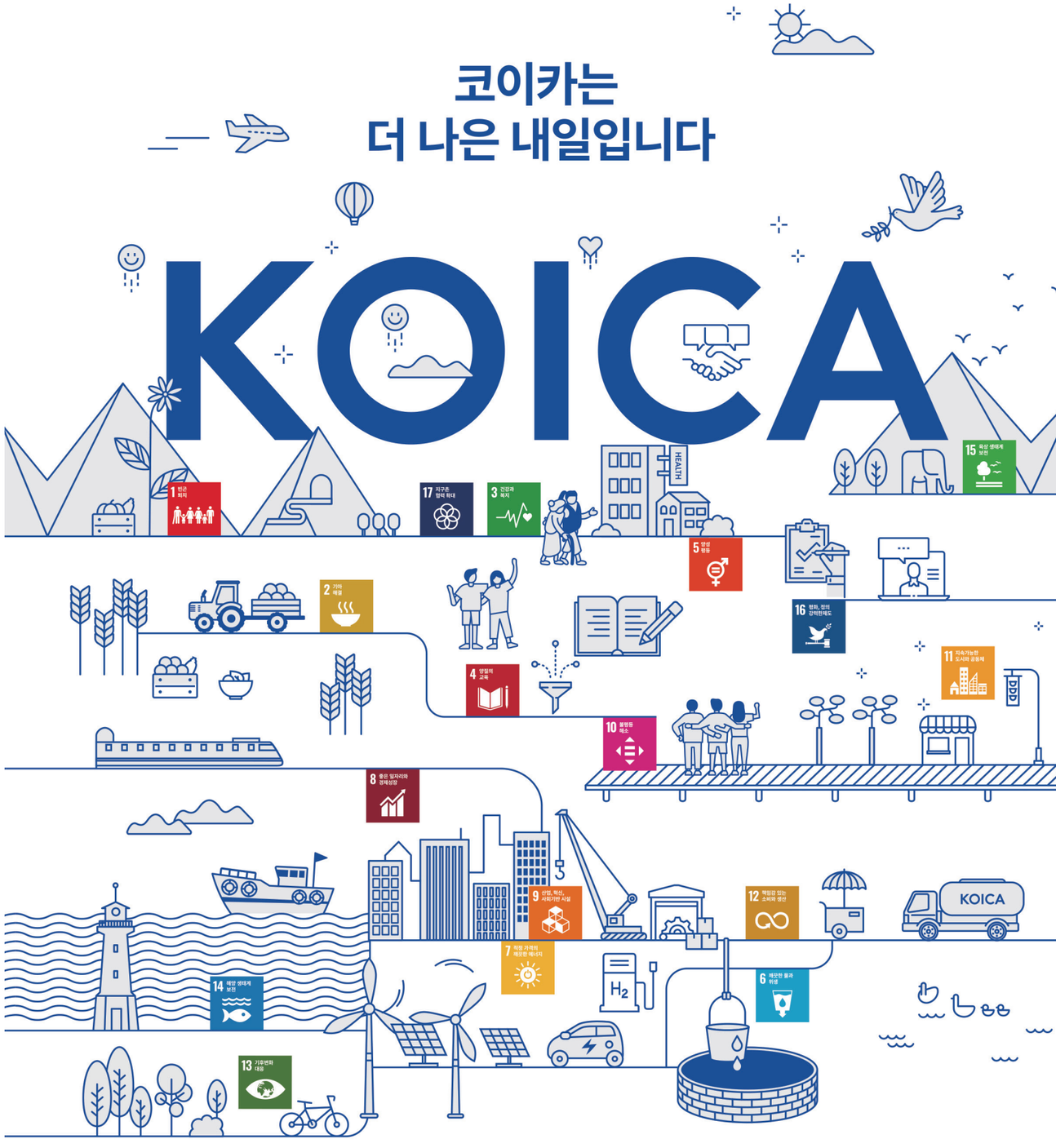
코이카의 파트너십 사업 소식에 더하여 〈MAGAZINE KOICA〉에는 지난 9월 개최한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 소식을 비롯해 우간다, 네팔 등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최신 ODA 관련 정보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문만 닫는다고 내 집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MAGAZINE KOICA〉 인터뷰를 통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전혜경 대표가 한 말입니다.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지만, 이 말이 난민 문제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는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을 지향하는 코이카 역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인류 공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 원 삼 드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코이카는 선진국형 ODA사업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무상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특별 인터뷰

“글로벌 위기 해결, ODA 역량 강화, 보편적 가치 실현”

재난, 기후, 분쟁 같은 작금의 글로벌 위기는 개별 국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늘날의 위기는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른 위기들을 연쇄적으로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코이카도 여러 선진 공여국과 함께 파트너십을 개발협력의 키(Key)로 삼고 국내외의 여러 개발 주체들과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해 코이카 이사장으로 취임한 장원삼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이카가 추구하는 파트너십과 그 방향성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Q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ODA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그간 우리나라의 ODA는 규모와 체제 정비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ODA 예산을 2023년 이미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시킨 데 이어,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40%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 규모가 달성되면 정부의 기존 목표인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ODA를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적 역할이 강화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그린 ODA 전략, 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 등 주요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는 측면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무상원조의 지나친 분절화로 발생하는 개발도상국 현장에서의 비효율은 우리나라가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ODA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의 확대뿐만 아니라, 늘어난 ODA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재 양성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개발협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 봉사단,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제도 등을 비롯한 개발협력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임기 중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실 계획입니까?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개발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의 3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코이카도 이에 발맞춰 취약국들의 기후위기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을 위한 그린 ODA,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 ODA, 개발도상국이 자립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훈련, 보건 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우리 강점을 살린 맞춤형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국제사회의 연대 의지에 동참하고자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적극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의 전시 상황을 감안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보건, 교육,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재건 사업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및 신흥 공여국, 국제기구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 공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너지효과를 거양하는 우수 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최빈국에서부터 신흥 공여국을 거쳐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개발사적 경험이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개발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 군사안보 위기와 그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자연재난 발생, 분쟁 및 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의 증가 등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들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위기가 다층적으로 얽힌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합위기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코이카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선진·신흥 공여기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국내의 ODA 재원에 더해 국외 재원, 민간 재원 등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추가 재원을 동원하고, 사업 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일례로 코이카는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한·미·일 3국 공여기관 파트너십을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과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코이카 분담 사업비는 2,200만 달러(약 164억 원) 수준이지만 선진 공여기관과의 협력으로 총 사업 규모는 1억 6,000만 달러(약 2,006억 원)로 확대됐으며, 수혜자는 가나 전역에서 581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가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파트너십은 ‘나’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우리’라는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개발협력의 키입니다.

Q 대형 자연재난과 분쟁 등으로 긴급구호나 인도적 지원을 통한 공조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이카는 어떤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코이카는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 7월 캐나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를 파견해 대한민국의 재난대응 역량을 현장에서 입증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의 증가에 따라 국제사회의 KDRT 파견 요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긴급 구호 ▶▶



대 파견을 위해서는 의료진, 구조팀, 수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긴급한 동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외교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방부 등 다양한 부처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코이카는 KDRT 사무국으로서 구호대 파견 관련 물류 및 행정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및 교육훈련 등에 참석해 선진 구호대와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DART(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JDR(Japan Disaster Relief)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는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재난의 유형에 따라 분쟁하 성폭력, 재난위험 경감, 난민/국내실향민(IDP) 대상 식수 위생, 보호, 영양 등의 분야로 나눈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튀르키예 지진 이후 이재민을 위한 임시 정착촌 조성을 3개 NGO와 협력해 지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Q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이카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사회적 경제조직 등 파트너 기관의 전문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은 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총 6개 분야에서 사업 공모를 통해 매칭펀드 형태로 코이카와 시민사회가 재원을 공동부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분야별 사업 수는 보건 37건, 다분야 27건, 교육 23건, 농림수산 17건, 고등교육 8건, 사회연대경제 7건 순입니다.

사업 공모는 파트너 기관의 조직 규모, 기관 전문성, 사업수행 역량 등에 따라 ▲진입형(신규기관·사업 대상) 사업 ▲성장형(현지 취약계층, 민생지원) 사업 ▲전략형(대규모·정부 정책 기여형) 파트너십 사업의 3가지로 다각화해 각 NGO의 발전 단계 및 수요에 맞는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성과를 높이고, 국내의 건강한 NGO 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사업 개선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Q 기업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발협력 파트너 중에서도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개발 재원을 동원해 개도국에 투자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전문성과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로 개발 수요가 폭증하고, 해결해야 할 개발 과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민간기업과 협업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스타트업, 소셜벤처의 혁신기술을 지원하는 CTS 사업과, 기업의 개도국 포용적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IBS 사업, 해외 민간파트너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IPS 사업 등 3가지 세부 사업* 을 통해 다양한 기업 파트너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개발과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즉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ESG 경영과 개도국의 SDGs 달성 간의 연관성에 착안해 IBS 사업의 하위 사업 모델로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를 신설해 총 6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Q 타 공여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코이카가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대표기관을 넘어서서,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랜 개발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해외 공여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연적입니다.

특히 최근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질서를 고려할 때 선진 공여국과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분쟁과 난민 증가 등의 글로벌 개발 문제는 과거와 비교해 양상이 복합적이고 심화해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에 따르면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심해졌으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분야에서 복합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개발 문제들은 단순히 한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 신흥 공여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주체들 간 강력한 글로벌 연대와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

*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 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IPS: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에 가입하면서 대내외적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창립 회원국으로서 약 60년 이상 개발협력을 추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선진 공여국은 오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ODA를 국가의 대외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연계하면서도 글로벌 현안과 지역 이슈들을 선도하는 전략적인 ODA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우리가 선진 공여국들의 이러한 노하우를 배우고 우리의 사정에 맞추어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자유, 평화, 번영, 법치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해외 공여기관, 국제기구 등이 코이카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얻는 효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이카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수원국들은 '참고할 모델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 그대로 우리나라는 정치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장 최근에 달성한, 개발도상국이 닮고자 하는 살아 있는 성공 모델입니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경로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현실을 분석해보고, 한국이 경험했던 개발 경험 중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인 만큼 주요 국제사회의 일원들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합한 접근법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글로벌 문제들은 특정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이해관계도 상이하며 전통적인 지원 수단인 ODA만으로는 SDGs의 달성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글로벌 문제에 대응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개발협력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모범 사례이자 경제적 역동성을 갖춘 선진국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는 한국을 대표하는 ODA 기관으로서 개도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견해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제 회의장에 가보면 코이카에 대해 ODA 사업의 모범 사례나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새로운 글로벌 문제 해결 접근법인 삼각협력에서 코이카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Q 코이카 이사장으로서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의 비전에서도 제시하였듯,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비전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이 함께 구축할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 체제 담론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이루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경과 지역을 초월해 인류에게 시시각각 닥쳐오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여·수원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협력을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협력 일자리를 확장해 우수 인재가 개발협력 생태계에 편입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관 내부적으로도 경영 혁신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Q 대사 재임 시절, 코이카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리랑카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 현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기관은 바로 우리 코이카였습니다. 코이카가 과학수사, 폐기물 처리, 직업훈련 등 각 분야에서 현지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이카 사무소 직원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된 다양한 전문가와 봉사단의 활동은 주재국 국민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저는 방문하는 곳마다 한국을 대표해 감사 인사와 환대를 받았습니다. 코이카가 국위 선양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K



PART 1 해외 파트너십 사업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교육, 성평등, 식량 등 다양한 분야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위기는 결코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코이카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및 공여기관들과 각 분야에서 협력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이를 예방 및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미국국제개발처(USAID)·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업무협력약정 체결식

가나 정부의 2030 보편적 건강보장 목표 달성과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3자 협력

ODA도 한·미·일 공조 가나에 대규모 보건 사업 추진

한국의 2024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는 6조 8,432억 원이다. 올해 대비 2조 650억 원(약 43.2%)이 증가한 역대 최고액이다.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증가율도 역대 최대치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 국가인 한국이 ODA 사업으로 그간의 경험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만큼 대규모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ODA 협력 사업의 형태는 다양하다. 국가 간 협력은 물론 기업이나 비영리기구(NPO) 등 민관 협력 사업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공여기관이 손잡고 아프리카 가나에서 2,000억 원 규모의 보건의료 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이 ODA 분야에서 협력한 최초의 사례다.

한·미·일, ODA 협력 시대 개막

코이카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지난 7월 25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가나 정부의 2030 보편적 건강보장 목표 달성과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3자 협력'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C)을 체결했다. 지원 규모는 총 1억 6,0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른다.

가나 정부는 '보편적 건강보장'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필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전 국민 대상 의료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하는 관련 지표인 UHC 서비스보장지수는 2017년 45점, 2019년 46점, 2021년 48점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UHC 서비스보장지수는 ▲출산 ▲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서비스 제공 역량 및 접근성 등 4개 영역과 16개 필수 의료 서비스의 보장 수준과 형평성 정도를 측정한 지표로, 2021년 기준 한국은 89점 수준이다.

한·미·일의 공여기관은 가나 북부 지역에서 건강보장과 보건안보에 필수적인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나 북부 낙후 지역 주민 대상 의료 접근성 확대 ▲가나 보건부 관계자 행정 역량 향상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공여기관 간 보건 분야 정보교류 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코이카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영양, 사회적 보호, 감염병 관리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정택 주가나 한국대사는 "한국 정부는 가나 정부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글로벌 보건안보 달성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미·일 협력을 통해 높은 품질과 접근성을 갖춘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팔머 주가나 미국대사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인류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협력을 통해 가나는 건강하고 평등한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 일본과 함께 역사적 파트너십에 동참하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복 지원 줄이고 효율 극대화

이번 3자 파트너십은 코이카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1월 코이카가 미국국제개발처에 가나의 일차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미·일 3국 약정 체결을 제안해 두 달 뒤 미국국제개발처, 일본국제협력기구 등 3국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 테이블(코이카 가나사무소)에 앉았다. 각국이 각자 지원하는 사업을 공유해 중복 요소를 없애고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코이카는 가나 북부 2개 주에서 1,200만 달러(약 160억 원) 규모의 일차보건의료 체계 강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 효과로 올해부터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함께 가나 전역에 1,085만 달러(약 145억 원) 규모의 감염병 대응 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기도 하다. 미국국제개발처는 보건정보 시스템 강화를 비롯해, 가나 보건청에서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통합적 일차보건의료 체계 강화 사업'으로 9,200만 달러(약 1,2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꾸리고 있다. 일본국제협력기구 역시 가나에서 산모수첩 보급, 의료품질 관리, 북부 거점 병원인 타말레센트럴병원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 협력의 효과는 중복 지원 방지에 따른 예산 절감, 상호 학습에 따른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 미국국제개발처는 가나에서 역량 강화 중심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주로 하고 있었다. 이에 코이카와 일본국제협력기구는 의료기기 지원에 집중하면서 원조 분절화를 방지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3자 협력에 따른 가나 보건 당국의 행정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약정은 코이카 창립 이래 최초로 추진된 한·미·일 공여기관 간 파트너십의 결과다. 코이카는 가나사무소를 2010년에 개소했지만, 미국국제개발처는 1957년 가나 독립 직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일본국제협력기구는 1976년부터 지원해왔다. 지원 규모 역시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의 약 11배, 일본은 2.5배 수준이다. 오승민 코이카 가나사무소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공여기관이 사업 파트너로 코이카를 선정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ODA 위상을 상징한다"라며 이번 약정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오승민 직무대리는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가나에서 공여기관 간 보건 분야 원조 분절화를 최소화하고, 상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 원조에 대한 인지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



코이카가 가나 북부 2개 주에서 실시한 일차보건의료 체계 강화 사업

코스타리카 삼각협력을 통한 중미 3국 건조회랑 지역 시설원예기술 역량 강화 사업

삼각협력이 이룬 중남미 3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중미 태평양 연안에 걸친 약 1,000㎞ 길이의 '건조회랑(Corredoe Seco)'은 연평균 강수량이 500㎜도 되지 않는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21년 발표에 따르면, 건조회랑의 7.5%는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가뭄 고위험 지역이 전체의 50.5%에 달한다.

문제는 원래도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 지대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건조회랑 지대에 속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 국가들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데,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작황이 악화하면서 식량난과 빈곤을 겪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적도 부근에 수온이 오르는 엘니뇨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이에 코이카는 코스타리카와 손잡고 중남미 3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대응과 농산물 생산성을 향상하는 역량 강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 떠나는 농민들

건조회랑 지대에는 약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농업 종사자다. 중미 지역 가족농은 주로 자급자족을 목표로 옥수수, 팥 등의 식량작물과 과채류를 재배한다. 과일·채소와 같은 원예작물은 생태환경 특성상 고지대에서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건조회랑 저지대에서는 작황이 부진하다.

특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건조회랑 저지대는 4개월 이상 가뭄이 지속되기도 한다. 각국 정부는 원예작물의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건조기후에 강한 우량종자 등을 보급하고 있지만, 원예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자체는 미비한 상태다.

이런 탓에 가족농은 기후변화가 심화한 지난 몇 년 사이 경제난에 처했다. 실제로 지역 영세농의 80%가 빈곤에 노출됐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영양결핍도 문제다. 유니세프(UNICEF)가 2019년 발표한 〈세계아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만성영양실조 아동 비율이 과테말라의 경우 51%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18개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


건조회랑 지대에 사는 주민이 양상추를 수확하는 모습

▶ 각각 3위(28%)와 9위(21%)에 자리했다. 세 국가의 만성영양실조 아동 비율은 모두 역내 평균 수치(17%)를 상회했다. 만성영양결핍은 비타민·무기질과 같은 미량영양소 부족에서 기인한다.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 양질의 식량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생계난, 영양결핍 등을 이유로 중남미 국가의 지역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다.

파트너십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

이상기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원예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선 결국 근본적인 시설원예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돼야 한다. 이에 코이카는 건조회랑 저지대 지역에 적용 가능한 시설원예기술을 발굴하고 실증한 후 현지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술을 보급할 계획에 나섰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코이카는 코스타리카 정부와 손을 잡았다.

코스타리카는 2021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중미 타 국가와의 삼각협력을 통해 역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신흥 공여국으로 분류되기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유사한 자연환경·사회경제 구조를 공유한다. 앞서 코스타리카는 건조회랑 지역에서의 시설원예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이번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기관은 코스타리카의 국립농업기술혁신이전연구소(INTA), 농업기술연구이전재단(FITTACORI)이다. 코스타리카 농업부 산하 INTA는 농업 연구와 농민 대상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술적·인적·재정적 역량을 보유했다. 사업비 집행을 담당하는 FITTACORI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국제협력 재원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관리와 회계보고 경험이 있다. 코이카는 ▲중미 3국 대상 코스타리카 초청 연수 및 현지 워크숍 ▲시범농장 및 시범포 구축 ▲시설원예기술 자문단 파견 등을 담당한다.


중미 3국 코스타리카 초청 연수 수료식

작물 재배 교육 지원하고 실증기술·전력 보급

코이카와 코스타리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비전통 농업작물인 채소 재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남미 3국에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엽산·철분을 함유한 엽채류와 비타민 A·C가 포함된 과채류 등 채소류 6종에 대한 생산과 소비 교육이 포함된다. 이는 건조회랑 지대 가족농의 생산량을 다각화해 소득을 증대하고 영양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또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설원예도 도입한다. 건기가 장기화하는 건조회랑 저지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의 수혜자는 2,100명이다. 수혜자는 코스타리카 INTA로부터 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 지원을 받는 직접수혜자와, 직접수혜자들을 통해 전달교육을 받게 되는 간접수혜자로 구분된다. 직접수혜자는 450명으로, 이 중 여성의 비율은 30%에 달한다. 직접수혜자들은 ▲조합지도자 초청 연수 ▲조합 단위 시범포 설치 및 운영 ▲현지 워크숍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수혜 조합이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간접수혜자는 총 1,650명으로, 교육받은 직접수혜자들로부터 건조회랑 지대 시설원예 지식과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다. 이들은 공동으로 시범포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도 한다.

효율성과 효과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다

이번 사업은 우선 중남미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2021년 기준 중남미 지역 평균 SDGs 지수는 68.6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3개국의 점수는 각각 59.9점, 67.9점, 62.8점으로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SDGs 두 번째 지표인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및 SDGs 열세 번째 지표인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건조회랑 지대 시설원예기술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 주축국과 수원국의 수요·공급이 합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 INTA, FITTACORI 등에서 파견된 농업 분야 전담 공무원과 연구진, 수혜국의 농민조직이 원활히 소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온건조한 사업 대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방충·차광 효율을 높이는 시설에 중점을 두고, 지역에서 공급하기 쉬운 자재를 이용하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K



칭기즈칸의 몽골제국 시대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몽골 사람들의 전통적인 집인 게르의 모습

이명신 UNDP 몽골 국가사무소 커뮤니케이션 분석가

몽골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남녀평등 참여를 향한 노력

몽골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전통적인 유목 생활은 몽골 문화의 근간에 깊게 뿌리내려 왔다. 그 문화의 중심에는 칭기즈칸의 몽골제국 시대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몽골 사람들의 전통적인 집인 게르가 있다. 게르 안에 들어가면 몽골 문화의 핵심 원칙인 조화와 균형을 아름답게 구현한 두 기둥이 보인다. 수천 년 넘게 이 기둥은 단순 구조물을 넘어 남녀 평등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여전히 풀어야 할 양성평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사회의 양성평등 상황은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재 몽골은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세계 평균인 26.5%를 밑도는 17.1%로 전 세계 133위에 머물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몽골 여성들은 임신과 육아 기간에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고,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과 성 고정관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 성 사회 규범 지수 보고서에서 이러한 실망스러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 사람의 97%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남성이 더 뛰어난 정치 리더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몽골 문화에 뿌리내린 가부장적 가치에 근거하여 여성들의 정치 진출 및 공공의사결정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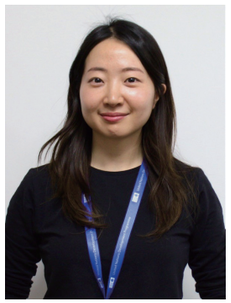
몽골 여성들의 공공의사결정 진출 지지기반을 만들다

UNDP는 코이카 지원으로 국내 여성 기반 단체인 여성리더십네트워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800명이 넘는 이 네트워크에는 여성 출마 의향자 및 리더십 자리에 진출하고 싶은 여성들이 모여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얻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얻는다. 초선 정치인인 엔흐치멕 남스라이자프는 여성리더십네트워크가 설립된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멤버 중 한 명이다.

"정치가 처음인 저에게 네트워크에 가입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정당 출신 여성들과 어떻게 함께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을 때, 네트워크 친구들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이 아니었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여성리더십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전했다.

여성리더십네트워크는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권리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 집단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엔흐치멕과 여성리더십네트워크 멤버들은 국회 앞에 모여 젠더 쿼터(Gender Quota)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전국에서 젠더 쿼터 증가를 요구하는 3,000통 이상의 편지를 모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엔흐치멕은 "젠더 쿼터 문제를 재고하려는 국회 회의가 열렸을 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낸 목소리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이명신
유엔개발계획(UNDP) 몽골 국가사무소 커뮤니케이션 분석가

이력사항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사회문화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심리학과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우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유니세프(UNICEF) 방글라데시 국가사무소에서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및 코로나 19 대응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맡기도 했다.



여성리더십네트워크가 국회에 모여 젠더 쿼터를 높일 것을 촉구하는 모습



지역 정당원들이 양성평등 지지를 표현하는 프로젝트 캠페인 포즈를 취하는 모습

젠더 챔피언(Gender Champion)을 통한 인식 개선 캠페인

코이카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젠더 챔피언들을 중심으로 공공, 민간, 언론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몽골 주요 정당 내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남성 위주의 문화를 바꾸는 데 젠더 챔피언들이 앞장서고 있다. 젠더 챔피언들은 코이카 프로젝트를 통해 받은 다양한 젠더 교육과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정당 내에서 젠더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지역 정당원인 에르헴바타르 투무르바타르는 "어떤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양성평등은 성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열정을 전했다.

몽골에서는 최근 법적 개혁을 통해 2024년 의회 선거부터 정당 후보 중 여성의 할당 비율이 20%에서 30%로 증가했다. 그리고 2028년 선거에서는 4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엔흐치멕은 "우리 조상들은 세대에 걸쳐 우리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수천 년 넘게 우리의 집인 게르를 지지하는 두 기둥처럼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한 기둥의 높이가 다른 기둥보다 30% 높다면 어떨까요? 완벽한 게르가 만들어지지 못할 거예요. 국회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처럼 언젠가 몽골 공공의사결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그 날을 기대해본다. K

WHO 항생제 내성(AMR) 등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대응능력 향상 사업

급증하는 AMR, 강력한 보건 파트너십으로 대응



서아시아에 위치한 요르단이 보건 위기에 처했다. 원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시리아 내전. 종식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요르단에는 난민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현재까지 요르단에 유입된 난민 수는 140만 명에 달한다. 갑작스레 증가한 인구로 요르단의 취약했던 의료 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특히 전쟁으로 발생한 부상자들에게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세균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감염병에 대한 문제가 커졌다.

이에 코이카는 AMR 문제로 보건에 위협을 받는 요르단의 질병 상황을 파악했다. 요르단은 암,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 비전염성 질병으로 사망률이 76%에 달하고,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비만이나 당뇨, 50%가 고지혈, 30%는 고혈압 등을 겪고 있었다. 특히 전염성 질환으로는 설사, 급성호흡기 감염, 간염 등이 주를 이뤘다. 코이카는 AMR 관련 시험, 샘플 채취, 장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은 요르단에 보건 협력을 결정했다.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코이카의 국제기구협력 사업은 요르단을 포함해 AMR 문제 대응이 어려운 페루, 라오스, 말리 등 총 4개 나라에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처음 시작해 2023년까지 7년간 수행됐다. 코이카는 대상 지역인 네 나라의 현황과 문제, 수혜자 등을 분석하고 각국에 맞춘 개선 과제를 수립했다. 이후 AMR 감시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국가 감시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 등이 진행됐다.

AMR 감염병, 저소득 국가를 먼저 덮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꼽은 '인류가 직면한 세계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인 AMR은 세균이 균을 억제하거나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약물 등에 노출됐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해서 '제2의 암'이라고도 불린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나 기생충 등이 더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아 감염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심각할 경우 질병 확산, 사망자 급증 등의 문제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

AMR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보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의 경우 의료 환경이 취약해 문제 대응이 쉽지 않다. 특히 AMR에 대한 보건 대응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과정으로 저소득 국가는 더 큰 빈곤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AMR로 세계적인 GDP 영향이 1.1~3.8%에 이르고, 이로 인한 빈곤 증가와 보건 비용은 연간 3,000억~1조 달러 ▶▶

▶ (약 300조~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농축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저소득 국가의 가축 생산이 연간 7.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사회가 저소득국가 AMR 대응 지원에 관심을 쏟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WHO는 AMR 해결을 위해 '원 헬스(One Health)' 개념을 제안했다. 원 헬스란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환경 등과 하나로 연계돼 있음을 인식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세계적 협력 전략을 의미한다. WHO는 원 헬스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보건 행동(GAP-AMR·Global Action Plan on AMR)을 선언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이 해당 프로그램에 협력했다. 선언을 통해 AMR 문제를 퇴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관성 확인 등에 합의했다. 코이카의 질병퇴치를 위한 국제기구협력 사업도 GAP-AMR의 일환이다.

AMR 대응의 핵심은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 수립'

코이카의 국제 질병퇴치 국제기구협력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네 나라가 AMR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크게 두 가지 전략과, 세부적으로는 7개 성과 목표와 9개 산출 목표를 세웠다.

먼저 사업이 진행되는 4개 국가가 전 지구적 AMR 감시체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 지구적 AMR 감시체제(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and use System, GLASS)에 가입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코이카는 AMR 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에 GLASS 연계 국가표준연구소(NRL)를 설립하고, WHO 인증 기준이 적용된 장비를 구축했다.

특히 AMR 대응의 관건인 핵심 데이터 확보를 위해 'GLASS IT 플랫폼(GLASS-IT platform)'을 구축했다.

AMR 감시를 위한 실험, 임상, 감염병학적 역량을 갖춘 곳을 선별해 국가별로 약 세 곳 이상의 감시 대상지를 선정해 데이터를 확보했다. 해당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됐다. AMR 표본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3차 병원의 데이터를 30% 이상 확보했다.

사업이 진행된 4개 나라의 GLASS 가입이 완료되고 나서 코이카는 GLASS와 연계된 AMR 국가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환경, 동식물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농업, 환경 분야를 고려해 전략을 세웠다. 식품, 동식물, 환경 등 다분야의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도 중요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코이카는 우선 수원국 정부기관에 참여를 유도했다. 또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국가조정센터, WHO와는 분기별로 정보를 공유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했다.

코이카의 국제 질병퇴치 국제기구협력 사업은 2023년 3월에 종료됐다. 국가별로 계획한 성과·산출 목표 55개 중 49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국가별로 달성해야 하는 7개 성과 목표 중 5개 성과 목표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달성을 완료했다.

다분야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된 코이카의 국제 질병퇴치 국제기구협력 사업은 외부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뒀다. WHO 본부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보고서 2022〉를 포함한 두 건의 보고서를 발행해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경과를 소개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된 코이카에 '감사합니다, 코이카(Thank You KOICA)' 홍보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소득, 환경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인류를 위협하는 AMR 감염병을 단번에 종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분야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국가가 직면한 AM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코이카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 질병퇴치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K



라오스에서 열린 항생제 내성 감시 및 항생제 소비 모니터링 분야 합동 미팅



코이카와 세계은행이 함께한 영향평가 워크숍

코이카-세계은행(World Bank) 영향평가 워크숍

코이카와 세계은행이 바라보는 사업평가란?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1909~2005)가 남긴 이 말은 최근에도 자주 인용된다. 성과를 측정하는 일, 즉 '평가'는 여전히 조직이나 사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ODA(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원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사 사업에 적용하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코이카는 1996년 ODA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이후 27년 동안 국내 ODA 평가 체계는 코이카의 주도하에 국제 정세와 정책 변화에 맞춰 고도화됐다. 최근 코이카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다른 나라의 공여기관이나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평가 체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고 있다.

세계 유수 기관과 협력해 평가 역량 강화

코이카가 최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관은 '세계은행(World Bank)'이다. 코이카와 세계은행은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태국 스위소텔 방콕 라차다 호텔에서 '영향평가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이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코이카에서 '내부 평가자'로 활동하는 직원 30명이 참여했다. 세계은행에서는 개발영향평가부(DIME)에 소속된 전문 애널리스트와 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내부 평가자 제도는 코이카 직원들이 평가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직접 코이카 사업의 효과 검증에 투입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자로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코이카 직원들은 세계은행 사례를 바탕으로 영향평가의 설계법, 사업 분석 방법 등에 관한 노하우를 배웠다. 김지윤 코이카 평가실장은 "코이카는 무상원조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을 축적해 개발협력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쌓은 과학적인 평가 기법과 다양한 데 ▶▶

▶ 이터 활용·수집 역량을 바탕으로 코이카 사업의 효과를 증명하고 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

국제사회에서 ODA 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심이 높아진 건 1990년대부터다. ODA 사업이 수혜국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성과' 확인이 중요해지면서 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코이카는 이 같은 국제 흐름에 발맞춰 1996년 사업평가를 전담으로 하는 '사업평가팀'을 신설했다. 1998년에는 최초로 '한·스리랑카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사후평가' '베트남 병원 건축사업 사후평가' 등을 실시했다.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평가 부서의 업무 범위는 점점 넓어졌다. 1990년대에는 평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1999년 평가의 기준과 절차, 피드백 방법 등을 담은 '코이카 사업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코이카 내부에서 평가 담당 부서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2006년 '사업평가팀'이 '사업평가실'로 개편됐다. 평가 대상은 개별 사업에서 정책, 전략 등으로 확대됐다.

2010년에는 한국 정부가 '공여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가입하면서 평가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했다. 우리나라가 6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것이다. 정부는 2010년을 'ODA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평가 선진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사업평가실은 이사장 직속부서로 격상됐다.

2011년에는 국내 ODA 기관 최초로 개발협력 사업평가 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규정한 '개발협력 사업성과 지표 샘플(Pool)'을 개발했다. 2018년에는 분야별 전략과 목표에 따라 사업의 성과와 품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품질 성과관리팀'을 신설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독립평가패널 품질검토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코이카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품질검토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투명성 확보로 ODA 예산 책무성 높일 것

코이카는 국내 ODA 분야 생태계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펼쳤다. 〈평가 및 성과중심 관리 주요 용어사전(2010)〉은 업계 종사자가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다. 2012년에는 〈평가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평가 단계, 예산서 작성법, 평가 보고회 준비 방법 등을 세세하게 설명해 누구나 쉽게 사업평가를 준비하고, 마땅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는 평가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과정을 열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4년부터는 ODA 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평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ODA를 실시하는 부처나 기관만 40곳이 넘는데 담당자가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수시로 개발협력 평가 포럼과 세미나, 설명회 등을 개최해 평가 정보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효과적인 평가 방식을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평가에 대한 정보는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개 홈페이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KOICA 사업평가 정보 공개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국가의 사업평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실시한 약 350건의 평가 정보가 보고서 원문과 함께 게시돼 있다. 국내외 사업평가 동향과 시스템, 평가 입찰·공모 정보, 사업평가 보고서, 평가 연보 등을 제공한다.

코이카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영국의 원조 투명성 검증 기관 '퍼블리시 왓 유 펀드(Publish What You Fund)'가 격년으로 시행하는 '원조투명성지수(ATI) 평가'에서 2020년, 2022년 연속으로 '상위(Good)' 등급을 획득했다. 국제기구를 제외한 공여국을 기준으로 미국, 독일에 이어 '톱 3'에 올랐다. 코이카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를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확인하고 코이카와 활발한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평가 업무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ODA 예산 책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


영향평가 워크숍에서 조별 토론을 하는 코이카 직원들



우즈벡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국립아동병원

코이카 아동병원 의료 인력 역량 강화 사업

유·무상 ODA를 통한 우즈벡 '아동 의료의 질' 강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이곳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립아동병원'이 있다. 문을 연 지는 3년밖에 안 됐지만,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최고 수준의 아동병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즈벡 최초로 신생아 희귀병 수술에 성공하는가 하면 심장수술만 연 1,000건을 진행하는 등 심장 분과를 주축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국립아동병원은 한국 정부의 유·무상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으로 2020년 건립됐다. 코이카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공동으로 지원해 병원 시설과 시스템을 갖췄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병원은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더 많은 아동 환자가 병원을 찾고 있다.

우즈벡 의료 지원 나선 '팀 코리아'

미국 CIA의 자료에 따르면 우즈벡의 만 14세 미만 인구는 2020년 기준 708만 8,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은 24.1%로 매우 높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우즈벡 병원은 의료 장비와 기술이 낙후돼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우즈벡 정부는 국제 수준의 4차급 선진 아동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의료 시설과 기술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무상 연계 지원을 추진했다. 외교통상부 산하 코이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EDCF, 보건복지부 산하 KOFIH가 한 팀을 이뤄 '원조 패키지'를 구성했다. 코이카는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EDCF는 1억 284만 달러(약 1,386억 원)의 차관 계약을 맺고, 국제적인 수준인 275개 병상 규모의 아동병원을 신축하도록 했다. KOFIH는 병원 운영·관리 체계 구축과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관별로 역할과 과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다.

병원은 2020년 10월 19일 공식 개소했는데, 우즈벡 내부에서도 이번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2020년 5월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직접 아동병원 건립 현장을 시찰했고, 개소식 당시에도 우즈벡 국영방송 O'zbekistan24를 비롯해 현지 주요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우즈벡 정부는 국립아동병원에 전국의 지역아동병원 13곳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부여했다. 대통령 명령과 내각령에 따라 지역아동병원이 국립아동병원 산하 지위로 확정됐다. 이에 더해 보건부는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병원 의료진이 국립아동병원에서 월 3회 이상 협진하는 등 교류를 강화하도록 했다. ▶▶

최첨단 교육훈련센터에서 역량 기른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첨단 의료 시뮬레이션 장비를 갖춘 교육훈련센터 구축 ▲소아임상 역량 강화 마스터플랜 수립 ▲의료진 한국 초청연수 ▲한국 소아과 전문의 현지 파견 교육 등을 진행했다. 투입된 금액은 총 700만 달러(약 94억 원)이다. 지원은 팬데믹 시기에도 꾸준히 진행됐다.

교육훈련센터는 2020년 12월 개원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운영됐다. 당시 중증 아동 환자 수가 급증했지만 현지 의료진 역량이 부족해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병원 의료진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긴급히 대두됐다. 코이카는 사업 수행기관인 서울대병원과 긴밀한 협의 끝에 2021년 총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해 연수를 추진했다. 김현영 소아외과 교수를 비롯해서 소아응급, 소아심장, 소아흉부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파견됐다. 교육훈련센터의 최첨단 의료 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해 고난도 임상술기를 지도하고, 저소득 중증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 수술도 진행했다. 현지 NGO인 자민파운데이션, 서울대 의과대학의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 등 국내외 여러 단체가 재정 지원을 했다. 교육훈련센터는 2021년 12월 국립아동병원으로 인계됐다. 이후 센터는 우즈벡 소아의과대학 의대생 실습 연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생은 약 3배 증가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찾은 우즈벡 의료진

모바일 기반의 의료인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됐다. EDCF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의료정보시스템(HIS)을 연계해 비대면 의료 환경을 조성했다. 의료진에겐 태블릿 PC 130대, 손목밴드 등을 지원했다. 지역아동병원 의료진에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펼쳤다. 국립아동병원 산하 총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감염관리팀 신설 ▲감염 관리 연수 및 컨설팅 추진 ▲감염병 대응용 물품 전달 등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으로 지역아동병원 의료진 총 214명, 지역 환자 616명이 수혜를 입었다. 팬데믹 기세가 한층 꺾인 후에는 우즈벡 의료진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3~6월 의사와 간호사 8명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초청연수를 받았다. 세 달 동안 특강과 실습을 통해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소아신경외과, 소아중환자실 등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 아크로벡 알리모브 우즈벡 국립아동병원 중환자실장은 연수생을 대표해 "현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연수생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준 모든 교육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대병원 초청연수는 우즈벡 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석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진료부원장은 수료식 직후 3박 4일 동안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에 직접 방문해 향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첫 신생아 희귀질병 치료

국립아동병원에는 2021년에만 약 5,000명이 입원했고 6만 명이 내원했다. 병원 이용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고난도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심장외과, 신경외과 등 그동안 우즈벡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희귀·난치 환아에 대한 수술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제3국 의료진과 국립·지역아동병원 의료진이 협진해 공동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만 2세부터 간질로 우즈벡과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아온 15세 여아는 아동병원 신장전문의와 제3국 의료진에 수술을 받아 증세가 크게 호전됐다. 환아 가족은 한국 정부와 아동병원, 우즈벡 대통령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20일 된 신생아의 심장희귀질병이 회복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이전에는 희귀질병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만 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일반 가정의 환아는 수술받을 길이 없어 초기 단계에 진료를 포기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국립아동병원에서 수술받은 신생아는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했다. 코이카는 "현지 의료진이 분야별 임상 경험, 지식을 쌓으면서 자신감을 얻은 점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 설립에 필요한 건축 자재와 의료 설비 대부분이 한국산으로 공급됐다. 또 한국인 기술자가 컨설팅 서비스에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술 이전에도 기여했다. 코이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술력, 우수성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한국과 우즈벡 양국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


한국 의료진의 우즈벡 파견 연수



미셸 수밀라스 미국국제개발처(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

파트너십을 위한 중요한 순간

오늘날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는 전례 없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팬데믹이 경제·사회·보건 분야에 미친 영향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빈곤과 불평등 심화, 식량안보 불안, 높은 에너지 가격, 기후변화 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들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런 도전과 위기는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이 약화하는 때에, 그리고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와중에 들이닥쳤습니다.

USAID와 코이카의 파트너십

미국은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 맞서면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진척하기 위해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역시 한국과 같은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저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과 서울에서 만나 대한민국 외교부와 3년간 협력을 약속하는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며 세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양해각서에는 20개 이상의 협력 제안 활동들을 포함한 USAID와 코이카의 다년간 사업 계획도 덧붙여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파트너십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

▶ 양국은 이미 오랜 우정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80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30년간 개발원조를 받아왔던 한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기하급수적인 경제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의 인도주의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주요 공여국 파트너로 국제 무대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런 역사 과정은 대한민국을 특별히 강력한 개발협력 파트너로 만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를 받았던 국가로서의 통찰력과 현재는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10대 경제 대국이 된 세계적 위상을 모두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SAID와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은 개발목표를 지향하는 국제 협력의 힘을 입증합니다. 오늘날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남아시아의 사이버 보안 강화, 메콩강 유역의 물 관리 개선,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를 통한 에너지 접근 향상 등 다양한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증진, 협력국 지역 지도자들의 발언권 강화, 인도적 지원 협력을 위해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농업 회복력 이니셔티브-우크라이나(AGRI-Ukraine)'는 양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이니셔티브에 가장 먼저 합류해 USAID와 함께 전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식량 불안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벗어나 자국의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권국가로, 민주주의와 번영의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삼자 협력

2023년 10월 말, 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엔도 가즈야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장과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을 만나 '제1차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고, 더불어 일본과 더욱 폭넓은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되었던 이 삼국 정책대화는 우리 개발 파트너십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정책대화를 통해 전 세계에 걸친 지원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이처럼 새로 싹트고 있는 삼국 협력의 좋은 사례 중 하나는 지난 7월에 서명한 가나 기초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사업을 위한 삼국 협력 각서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USA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코이카 그리고 가나 보건부는 가나의 기초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자의 역량, 전문성, 자원을 한층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명식에서 버지니아 팔머 주가나 미국대사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인류는 더욱 건강하고, 평등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가나의 보편적 보건을 위한 이 파트너십에 한국, 일본과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도전에 맞서면서 지역사회가 장차 직면할 세계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번영과 회복력을 구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삼국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의 모멘텀에 더해 세계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개발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코이카 본부 건물에 수십 년 된 밀가루 부대가 전시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부대에는 '미국 국민으로부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국가들에 개발 원조와 협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다시금 크게 느꼈습니다. K



미셸 수밀라스
미국국제개발처(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



전혜경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전혜경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악화되는 난민 문제, 국제사회가 반드시 협력해야”

국제사회에서 난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연간 1만 2,000여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을 받고 있다. 작금의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취임 1주년을 맞은 전혜경 대표를 만나 난민 문제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노력, 난민 문제와 관련한 코이카와의 파트너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Q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후 1년은 어떻게 보냈나요?

감사합니다. 〈MAGAZINE KOICA〉 독자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영광입니다. 코이카와 같은 오랜 파트너의 지원은 전 세계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UNHCR의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해외에서 오래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로 임명된 최초의 한국인이다 보니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리아와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지진, 수단과 아르메니아의 분쟁 등 수많은 새로운 위기가 발생해 강제 실향 가족들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강제 실향민들의 어려움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 ▶▶

▶ 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로 임명되기 전에 어떤 업무를 했나요?

저는 학생 때부터 난민, 이주,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 관심이 저를 유엔(UN)에서 일하도록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대한민국 정부가 후원해주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로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칠레, 일본, 미얀마 등 다양한 지역과 스위스 및 뉴욕의 UNHCR과 유니세프(UNICEF) 본부에서 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하는 동안 전 세계 UNHCR 보호대상자들이 서로 다르지만 또 공통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UNHCR이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곧 UNHCR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로 임명된 지 불과 1년 만에 이뤄진 인사인데, 본인도 놀라지 않았나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을 떠나게 돼 아쉽지만,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UNHCR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일본, 한국 등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에서 얻은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기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역 내 여러 국가를 한데 모아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난민들을 비롯한 강제 실향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공유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가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난민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난민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리고 UNHCR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강제 실향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지난 몇 년 동안 더욱 악화됐습니다. 오늘날 전쟁, 분쟁, 박해, 인권 침해로 인해 강제로 집을 잃은 사람들 숫자는 1억 1,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3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강제 실향민들이 직면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며 2011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으로 1,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잃었으며, 그중 많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난민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난민은 고국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이웃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주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이기에,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이카와 같은 파트너의 도움과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UNHCR을 비롯해 현장에서 일하는 기관들은 보호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인도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의 정치적·도덕적·재정적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난민 사안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항들을 처리하고 난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연계에 다시 초점을 맞춘 것을 환영합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강제 실향 상황에 대한 대응에는 국제 협력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가 잘 협력할 수 있을까요?

강제 실향민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갈등, 박해, 폭력이 종식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제로 집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화협정, 안전한 귀환, 개발 재개 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사회는 협력하여 난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폭력과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단순히 문만 닫는다고 내 집이 안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강제 실향 상황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만, 모든 난민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난민 보호를 위해 일을 하며 제가 분명하게 느낀 한 가지는, 바로 우리도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Q 난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강제 실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UNHCR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난민 사안에 있어 대중들의 인식 제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보이는 것을 보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5%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들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준의 친절함과 동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부정적 인식도 공공연하게 존재합니다. UNHCR은 공공 행사, 영화, 워크숍,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 ▶▶



행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 전혜경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 민국 및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관한 진실한 이야기와 사실들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사안을 더욱더 정확하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학생, 교수, 시민사회, 인플루언서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MAGAZINE KOICA〉와의 인터뷰도 난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Q 현재 UNHCR은 코이카와 협력을 통해 파키스탄, 에콰도르, 케냐에 머무르고 있는 난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이나 달성한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다년간 코이카의 지원으로 UNHCR은 각 국가의 난민과 수용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들이 삶을 되찾고, 안전함을 느끼며,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한 코이카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이카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일 것입니다. 산모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아기를 분만했고, 가족들은 현금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코이카와 UNHCR은 물과 위생시설을 완비한 학교 5곳을 건립하고, 난민 캠프에 모자보건소 10곳을 복원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 안전망을 개선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UNHCR은 4만 8,000명 이상의 난민과 수용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현금 지원을, 3만여 명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약 12만 9,000명의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부룬디에서는 부룬디 난민들의 자발적 귀환과 평화적 재통합을 위한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 난민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강제로 집을 잃은 상태로 살았던 이들의 귀환은 난민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글로벌 난민 콤팩트(Global Compact for Refuges)'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UNHCR은 20만 7,500건의 귀환을 도왔고 장기적인 재통합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Q 코이카가 UNHCR을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이카와 UNHCR의 파트너십은 2014년 콜롬비아 실향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제 실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던 콜롬비아에서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코이카와의 관계는 10년간의 협력으로 발전했습니다. 교육, 건강, 자립 및 지역사회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금까지 누적 5,4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함께 시행해왔습니다. UNHCR은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UNHCR은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코이카가 가진 전문성을 신뢰하며, 난민 보호 분야에 있어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난민들도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난민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전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은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분쟁으로 인해 조국이 파괴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해 본 저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놀라운 발전, 역동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의 모범 사례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이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인도적 지원과 난민 보호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K

제3차 믹타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세계 개발협력기관 '믹타 협의회'서 다자간 협력방안 논의



화상으로 진행된 믹타 회의 모습

세계 개발협력기관이 모인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에서는 다자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를 전망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자리다. 코이카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차 믹타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The 3rd High-Level Meeting of MIKTA Development Cooperation Network)'에 참석해 다자간 협력방안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믹타는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 간의 협의체다. 2013년 9월 제68차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출범했다. 회원국은 2016년 7대 협력 분야 중 하나로 '지속가능개발'을 선정하고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별도의 협의체를 꾸리게 된 계기는 코이카가 나서면서다. 한국은 2020년 믹타 의장국을 맡으면서 중점 협력 분야로 '개발협력'을 본격 제시했다. 이듬해 코이카 주도로 '믹타 개발협력기관 협의회'를 발족했고, 지난 2년간 개발협력기관 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올해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코이카 지역사업Ⅱ본부의 홍석화 이사가 대표로 참석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혁신적 다자간 협력방안 ▲미래 국제개발협력 지형의 전망 ▲2023 공동협력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에서는 공통의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서 믹타 협의회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등 협의체의 역할과 파트너십 강화가 강조됐다.
코이카는 이 회의에서 다자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적 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DIP)'을 소개했다.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소셜벤처, NGO 등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도국 지원사업의 효과를 확대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향후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을 위한 코이카의 삼각협력도 주목받았다. 삼각협력은 개발도상국에 두 개 이상의 공여국이 공동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ODA 예산 규모 확대와 정부의 기여 방안도 공유됐다. 정부는 내년도 ODA 예산을 올해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6조 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코이카는 "향후 ODA 분야에 보건안보,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개발협력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협의회의 발족 이후 대면으로 개최된 첫 번째 고위급 회의다. 코이카는 "믹타 개발협력기관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협력의 지형 변화에 맞춰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

PART 2 국내 파트너십 사업

코이카는 국내 파트너십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정부 부처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코이카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등을 통해서는 유망한 우리 기업을 발굴합니다.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의 기술을 해외에 알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브레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인도의 어린이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우수사업 성과: 두브레인

두뇌발달 프로그램으로 '느린발달아이' 60만 명 치료

'느린발달아이'는 발달장애 아동과 발달지연 아동을 포괄하는 용어다. 전 세계 6명 중 1명이 느린발달로 추정된다. 발달 속도가 늦은 이른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기 개입이 이뤄지면 평생 겪어야 할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 의료진 부족과 높은 치료 비용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세계 공통의 고민이다. 더구나 느린발달아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또는 발달지연이 의심돼 심화평가를 권고받는 아동의 비율은 2016년 1.68%에서 2020년 2.38%로 증가했다.

인지발달의 경우 어린 나이에 개입할수록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낮은 소득, 인프라 부재, 인지발달 중요성에 대한 무지 등으로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치고 치료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두브레인(Do Brain)은 느린발달아이 대상의 조기 스크리닝과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한다. 두브레인의 주요 솔루션은 '디킷(D-kit)'이다. 디킷은 스마트폰과 태플릿PC로 애니메이션이나 동화를 제공하고 내용 사이에 문제를 넣어 뇌를 자극하는 인지발달 치료 프로그램이다.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캄보디아 최초 인지발달 교육 론칭

두브레인은 2017년 최예진 대표가 서울대 경영대 재학 중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교육봉사활동을 다니던 최 대표가 저소득층 가정에 유독 느린발달아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

▶ 인지치료사 자격증을 따서 디지털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창업으로 이어졌다.

두브레인은 2018년 코이카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CTS는 혁신 기술을 ODA(공적개발원조)에 적용해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이다. 캄보디아에서 인지발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것도 두브레인이 처음이었다. 두브레인 관계자는 "CTS와 두브레인이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바라보는 방식이 비슷하다"라며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방식이 두브레인의 이념과 부합했다"고 말했다.

두브레인은 CTS 기술개발 단계(Seed 1)에 선정되면서 캄보디아 국내 소아정신과 교수들과 현지 특수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에서 캄보디아 최초로 인지학습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캄보디아 최고 소아 의료기관인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에서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해 캄보디아 최초 크메르어 인지발달 교육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애니메이션 104화, 게임 52화를 현지화한 프로그램이었다. 캄보디아 내 신규 이용자 수는 17만 5,711명에 이르렀다. 캄보디아 유일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Hands of Hope Cambodia(HHC)'를 포함한 3개 학교에서 총 45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효과성 검증을 위한 2건의 임상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예진 두브레인 대표는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만큼 빠르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없다"라며 "휴대폰 하나만으로도 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인도 벵갈루루 지역 9개 학교 400여 명의 학생에게 인지발달 교육을 시작했다. CTS 사업화 단계(Seed 2)에 선정되면서다. 인도의 국가표본조사기구(NSSO)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1.8%가 장애를 갖고 있고, 이 중 1.0~3.2% 비율로 지적 장애 유병률을 보인다. 특히 최근 5년 새에 발달지연 아동의 수는 4배로 증가했다.

인지 재활은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다. 하지만 인도는 지적장애와 발달지연 아동의 진단·치료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특히 학령기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교육·발달 프로그램은 대부분 센터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오프라인 세션으로 열린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수학이나 영어 등 학습 목적으로 이뤄져 있다.

두브레인 관계자는 "교육 효과가 높은 만 6세 미만 시기에 거리적, 물리적, 경제적 장벽을 넘어 적절한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면 발달지연 아동들 사이의 스크리닝·중재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내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브레인은 현지 아동보호 전문 NGO인 록빠(Rogpa)와 함께 이용자 1명이 생길 때마다 인도 아동 1명에게 두브레인 프로그램을 선물하는 'Grow Together'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인도 내 40~50개 보육시설의 교육을 관리하는 록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교재를 찾다가 두브레인과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2023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국내 15개 병원과 다기관 임상 실증을 하며 소아 발달 질환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두브레인은 21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기술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는 단계의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벤처캐피탈(VC) 인터베스트가 주도해 150억 원을 투자했고, 국내 보험사 한 곳과 기존 투자사인 KB인베스트먼트가 이번 투자에 참여했다. 앞서 2020년에는 시리즈A 투자(최초 투자금이 되는 시드머니 투자) 유치로 65억 원을 조달한 바 있다. 두브레인은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다양한 발달 속도를 지닌 아동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두브레인 관계자는 "아이들이 더욱더 쉽게 발달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우수사업 성과: (주)베리워즈

캄보디아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선도하는 우리 기업



㈜베리워즈의 스쿠터와 배터리

김성우 베리워즈 대표의 말이다. 2017년 설립된 베리워즈는 기후변화 컨설팅 기업으로, e-모빌리티 생산은 물론 이와 관련한 서비스, 재활용에 이르는 e-모빌리티 밸류체인을 아우르고 있다. 김 대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꼽는 시급한 과제로 '전기 오토바이의 개발도상국 보급'을 언급한다.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인들에게 오토바이는 일상생활입니다. 늘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서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포인트를 받아 충전요금 할인까지 연결한다면 캄보디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을 생활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인식 변화는 다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의 첫발, IBS 프로그램

베리워즈가 캄보디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세운 가장 큰 목표는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었다. 문화가 바뀌면 생태계가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에서였다. 하지만 문화를 바꾸는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려 경제적 논리를 중요시하는 기업에서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캄보디아는 2030년에 45%의 탄소를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사업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나 기업들은 특정 기술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역시 당장의 경제성 논리와 상충하는 문화나 생태계 조성에 투입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이카의 IBS 프로그램 ▶▶

'탄소중립'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Zero)'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사업 형태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7년 창업한 기후변화 컨설팅 기업 ㈜베리워즈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와 '새로운 문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에 참여했다.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다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이 체결됐다. 195개국 당사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이 협약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42%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개인 차량 소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오토바이 사용자 수는 특히 많다.

"개발도상국은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더라도 이를 실현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도움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정작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활이나 인식이 바뀌지 않아 사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베리워즈의 팝플스테이션 모습

이 새로운 활로를 열어줬다. IBS는 코이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간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과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 e-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2021년에 생태산업단지 발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e-모빌리티 생태계'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이 사업은 스타트업인 베리워즈가 홀로 감당하기엔 쉽지 않았다. 캄보디아라는 개발도상국 특성상 사업 제안을 반기는 곳도 없었다. 그러던 중 국제개발협력 전문 컨설팅 기관인 KODAC에서 코이카의 IBS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개발도상국의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은 IBS 프로그램의 취지에도 적합한 사업모델이었다.

성능과 가격경쟁력 모두 갖춘 e-모빌리티 양산과 판매 성공

베리워즈는 코이카의 IBS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아 탄소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베리워즈는 이 사업의 총괄 기관을 맡아 캄보디아에 e-모빌리티 양산 단계를 구축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SHS(Solar Home ESS System)를 개발했다. 그리고 현재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구축을 진행 중이다.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제도를 만드는 일인데요.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해 원조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코이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베리워즈는 현지에서 e-스쿠터 100대를 생산 완료했다. 2023년 8월 기준 판매 수량은 86대. 기존 오토바이 대신 e-스쿠터 이용에 나선 현지 사용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우리 회사의 e-스쿠터는 배터리와 e-모빌리티 본체를 분리해서 판매하는 고품질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경쟁사의 제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기존 휘발유 오토바이와도 유사한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이전에 휘발유 오토바이를 탔던 사용자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며

한편으로 은행과 주유소 등과 협력해 사용자들이 방문하기 편리한 곳에 충전소를 설치했다. 덕분에 사용자들의 배터리 교환 편리성도 높였다. 남은 과제는 재활용센터 구축과 폐배터리 수집 체계 구축이다.

"e-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과연 스타트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코이카의 지원이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IBS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탄소중립 문화 구축의 중요성이 대외적으로도 증명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e-모빌리티 생태계를 완성하려면 e-모빌리티 현지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충분한 충전 인프라 구축은 필수다. 이를 위해 베리워즈는 한국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캄보디아의 e-모빌리티 에코플랫폼(eco-Platform)을 완성할 수 있는 까닭이다. 2020년 기준 캄보디아에 등록된 오토바이 수는 약 520만 대. 이를 감안하면 현지의 오토바이 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두 배로 추정된다. 현지의 오토바이가 e-모빌리티로 대체된다면 그 파급력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IBS 프로그램으로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문화 확산의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딘 베리워즈의 최종 목표는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전기 오토바이가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K



김성우 ㈜베리워즈 대표



휴대용 수질측정기가 필요한 마을을 다니며 사용법을 설명하는 파이퀀트 직원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우수 사업 성과: 파이퀀트

휴대용 수질측정기로 개도국 식수 문제 해결

매년 82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워터(UN Water)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 〈위생과 식수에 대한 글로벌 분석 및 평가(GLAAS)〉에 따르면, 국제 기준에 맞게 식수 위생을 관리하는 국가는 전 세계 25%에 그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민 지역 주민은 동물 사체나 배설물, 인분 등에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면서 콜레라와 이질, 장티푸스 등에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이를 세계 개발도상국으로 보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현지에서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기술 이전과 지속적으로 운영할 인력을 교육하는 데도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CTS, 기술로 개발도상국과 스타트업을 연결

코이카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건, 교육, 물,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CTS는 '예비창업가 교육(Seed 0)'부터 '기술개발 단계(Seed 1)', '사업화 단계(Seed 2)'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개발도상국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93건이며 지원 약정까지 포함하면 103건에 이른다. 분광학 기반으로 물속 세균 검출기를 개발한 '파이퀀트'도 CTS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에 진출한 스타트업 중 하나다. 2021년부터 2년간 수질오염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에 휴대용 수질측정기를 보급했다. 파이퀀트 측은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적정기술(해당 지역사회의 인프라 수준을 고려해 만드는 기술)'로 불리는 휴대용 수질측정기를 개발했다"며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을 거쳐 완성된 기기를 안전한 식수가 필요한 지역에 널리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파이퀀트, 분광 기술로 휴대용 수질측정기 개발

인도의 수도 뉴델리 인근 발스와 지역에는 높이 62m의 '쓰레기산'이 있다. 각종 오염물질이 한데 쌓이면서 유독가스를 내뿜고 폐기 ▶▶

▶ 물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 일대의 지하수도 오염됐다. 인도 비영리단체 과학환경센터(CSE)에 따르면 발스와 지역의 쓰레기산 인근 지하수 내 총용존고형물(TDS)은 1리터당 3,000~4,000mg 수준이다. 씻는 물로도 적합하지 않은 오염수다. 인도에는 3,000개가 넘는 쓰레기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간이 정수 도구로 흙탕물을 가라앉혀 마시는 경우가 많다. 간이 정수 도구는 병원성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은 걸러내지 못한다.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식수를 판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속 세균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파이퀀트는 수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 분광 기술과 GPS를 활용한 '워터스캐너'를 보급하고 있다. 분광(分光) 기술의 원리는 간단하다. 물질에 빛을 쏘면 고유의 파장이 나타나는데 이를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펙트럼은 분광기나 프리즘을 통해 볼 때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선형으로 나타난다. 이 파장을 물속 세균의 스펙트럼과 비교해 물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워터스캐너에 물을 넣고 작동시키면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기와 연결하면 어떤 세균이 있는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워터스캐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검사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수질 정보를 즉시 수집할 수 있고 서버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체온을 활용한 총대장균군 검출 키트인 '콜리퀀트'도 파이퀀트가 개발한 제품으로 전기 사용이 어려운 오지에서도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원(水源)별 수질을 파악해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질 지도'를 만든다. 파이퀀트 측은 "수질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수질오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첫 단계로 수질 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 분광기로 1분 안에 세균 측정

일반적으로 물속 유해성분 검출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식시켜 확인하는 PCR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시료를 채취해 실험실로 옮겨야 하고, 결과를 얻는 데도 24시간 정도 걸린다. 특히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장비 비용이 개발도상국 보급에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파이퀀트는 현장에서 소형 분광기로 1분 내에 세균 유무를 가려낼 수 있다. 덕분에 검사 시간은 PCR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고, 비용은 50분의 1로 낮췄다.



파이퀀트의 휴대용 수질 측정기 '워터스캐너'



물속 대장균을 검사하는 파이퀀트의 휴대용 대장균 검출 키트 '콜리퀀트'

또한 대장균 검출 키트인 콜리퀀트는 파우치 형태로, 간단하게 샘플을 채취해 신체에 부착하거나 장비를 37℃와 유사한 환경을 유지하면 총대장균군을 검출할 수 있다. 적정 대장균 배양 온도인 37℃와 유사한 사람의 체온을 활용한 적정기술이다. 파이퀀트 측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추가로 연구 개발해, 개발도상국의 초기 미생물 검사에 적용할 수 있었다"며 "전기가 없는 오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1개당 4,000원 이하로 보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퀀트가 개발협력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코이카 CTS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다. 2018년 기술개발 단계(Seed 1)로 인도에 처음 진출해 15개월간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2021년부터 사업화 단계(Seed 2)에 선정되면서 현지 기관과 협력해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파이퀀트는 "인도와 베트남에서 각각 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파이퀀트의 기술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지 정부 기관과 협력해 현지 기업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K



낙농 교육에 참여한 케냐 루무루티 지역 낙농협동조합 여성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우수 사업 성과

ODA도 시민사회단체(CSO) 파트너십으로

코이카의 민관 협력 사업은 역사가 깊다. 1995년부터 시민사회와 협력해 시민사회단체(CSO), 대학, 연구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파트너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중에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중소형 파트너들과 협력사업을 발굴해 파트너의 조직이나 사업 역량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입형'과, 현지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풀뿌리 개발협력 사업 방식인 '성장형',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를 목적으로 CSO와 코이카 간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갖는 '전략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케냐 낙농조합, NGO-스타트업 연계로 급성장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케냐의 성불평등지수(GGI)는 전 세계 153개국 중 109위로 낮은 편이다. 지금까지도 케냐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혼이나 할례 등 악습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탓에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수 킬로미터를 걸어 물을 긷거나 땔감 찾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케냐 정부도 손놓고 있는 건 아니다. 2010년 개정된 케냐 헌법 제27조에는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개정 헌법이 사회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고착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 NGO 유니월드 인터내셔날과 함께 2021년부터 케냐 루무루티 지역에 낙농협동조합인 '마루협동조합(MARU Dairy Farmers Co-operative Society Limited)'을 설립해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유도하고 있다. 조합원은 100명. 조합의 연 평균 매출액은 7만 9,797달러에 이른다. 1인당 소득을 따지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차년도 462.1달러에서 3차년도 776.4달러로 급증했다.

조합 매출은 주로 우유 판매에서 나왔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루무루티 시내에 우유 자판기를 설치하고 개별 고객에게도 판매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했다. 안정적인 수익의 비결은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에 있다. 코이카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사업에 선정된 낙농업 ICT 스타트업 '바딧(Bodit)'은 협동조합에 송아지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정밀사육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급했다. 또 교육을 통해 농부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학생도 교사도 '쑥쑥' 초등학교 지원 사업

현장 수요를 파악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는 NGO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 NGO 한국국제봉사기구는 에티오피아의 오로미아주 비쇼푸트시에 있는 5개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초등교육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계속해오고 있다. 1단계(2017~2019년) 사업에 이어 2단계(2021~2023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생 수는 25.2% 늘었고, 상급학교 진학률은 97.2%, 8학년 졸업률은 95.1%까지 높였다. 에티오피아 학교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을 정도로 성 불평등 ▶▶

▶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여학생의 학업 이수율은 5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코이카와 한국국제봉사기구는 학내 시설부터 정비하고 빈곤층 아동 급식 프로그램, 위생용품 지원,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2021년 기준 여학생 출석률을 96.1%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99.1%로 사실상 전원 출석을 기록했다. 여학생의 8학년 학업 이수율은 92.8%로 높였다.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했다. 워크숍, 학생 관리, 수업 전략, 학교 경영 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교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교육자로서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사들은 학습공동체 'BTG(BEEKUMSA Teachers Group)'를 직접 꾸리고 동료 교사와 인근 지역 교사들에게 교육 내용을 공유했다.

대규모 장기 사업 위한 전략형 파트너십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코이카와 전략형 파트너십을 통해 2021년부터 필리핀 동부 비사야 지역에서 모자보건 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5년, 총 사업비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주민 주도다. 월드비전은 모자보건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모듈을 개발해 지역보건요원(Barangay Health Worker)이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히 왕진 방식의 보건 사업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뤄지는 관행들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가족의 참여와 가정 내 성 역할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월드비전은 지역보건요원 1,865명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훈련을 제공해 산모와 양육자가 필수 모자보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가정방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35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민주도옹호그룹(CVA)'을 만들고 역량 강화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필리핀 보건부(DoH)와 지역정부(LGU)의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사업 대상 지역인 16개 군마다 지역주민으로 주민주도옹호그룹을 구성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이 직접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스코어카드' 시스템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확인된 문제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실제 서비스 간의 격차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에티오피아 가임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생리대 제작 교육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 임시 거주촌 전경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을 위한 민관 합동 임시 거주촌 사업

지난 3월 튀르키예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사업도 민관 합동 긴급구호 활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지진 이재민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임시 정착촌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의 개촌식이 개최됐다. 이번 임시거주촌 사업은 코이카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시민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 민관 합동 사업이다. 지진 조기 복구를 위해 지난 3월 튀르키예에 파견된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과 임시 거주촌 사업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은 약 4만㎡ 규모로 5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재난용 임시 거주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 하우스 외에도 유치원과 학교, 아동과 여성 친화 공간, 공동 세탁실, 주민센터 등 다양한 공용 공간과 필수 시설을 갖춰 삶의 터전이 복구될 때까지 이재민들이 충분히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이재민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유아 코이카 다자협력인도지원실 실장은 "코이카는 튀르키예 이재민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수행 파트너 NGO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 등 유관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K

캐나다 산불 현장에 투입된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초국가적 공조와 KDRT의 역할 더욱 중요해질 것”



캐나다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KDRT

올해 캐나다 전역에는 전례 없는 재앙적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1,840만 헥타르의 숲이 화염에 휩싸였다. 우리나라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소식을 전하며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평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캐나다에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를 파견했다. 총 152명으로 구성된 KDRT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캐나다 퀘벡주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펼쳤다.

KDRT 활동은 현지 주민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한국으로 복귀하는 우리 수송기를 방문해 직접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이라며 “이번 KDRT 활동으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더운 여름 하루 12시간, 퀘벡주에서 작전을 펴다

KDRT는 한국 시각으로 지난 7월 2일 오전 발대식을 마치고 우리나라 군 수송기를 타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권기환 외교부 본부 대사가 긴급구호대장을 맡았다. KDRT 대원은 코이카(3명), 외교부(6명), 산림청(70명), 소방청(70명), 의료 인력(3명) 등으로 구성됐다.

7월 2일 오후 1시15분(현지 시각)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KDRT 대원들은 훈련을 위해 퀘벡주 마니와키(Maniwaki)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7월 3일까지 훈련을 마친 후 다음 날 퀘벡주 르벨 슈흐 케비용 산불 현장으로 향했다. 르벨 슈흐 케비용은 주민 대피령이 두 번 내려지는 등 퀘벡주 내에서도 산불이 심각했던 지역 중 하나다. KDRT가 한창 활동 중이었던 7월 말 기준 약 63만 헥타르의 피해를 입었다. 여의도의 약 1,400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원들은 7월 5일 본격적인 산불 진화 활동을 개시했다. 주로 미국 소방대원들과 협력해 작업을 진행했다. 일정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됐다. 현지식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오전 7시부터 인근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ICP 상황회의(Incident Command Post briefing meeting)에 참석해 작전 등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나면 100~200㎞ 떨어진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진화 작업을 했다. 오후 4시 30분~5시에 활동을 한 후 오후 7시경 캠프로 돌아왔다. 저녁 8시에는 다시 한 번 ICP 상황회의를 열었다. 대원들은 이 같은 일정으로 14일간 근무한 후 이틀간 휴식을 갖고, 다시 14일간 활동했다. ▶▶

▶ 코이카는 KDRT 사무국으로서 선·후발대 3명씩 총 6명을 파견해 물류 운송, 의료 지원, 생활 제반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박영신 KDRT 대원은 “낯설고 열악한 환경에서 긴급구호대 내 단합과 사기를 고취하는 것이 사무국의 가장 큰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된 진화 작업에 체력이 떨어진 KDRT 대원들을 위해 캐나다 측과 협의해 활동 지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삼겹살 150인분을 공수하고, 직접 구워 대원들에게 대접했다”며 “이런 지원은 한 팀으로 연대감과 결속력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코이카 대원들은 현장에서 큰 위협이 됐던 모기, 혹파리 등을 예방·퇴치하기 위한 물품도 확보했다. 부상자의 병원 이송과 응급처치 지원도 코이카 대원들의 몫이었다. 한 달 동안 텐트에서 생활하는 대원들의 샤워 공간, 통신 인프라 등 생활환경 개선과 식음료, 소방장비 등의 물자 운송도 지원했다.

산불 진화율 94% 달성… 현지 언론도 주목한 KDRT의 활약

더운 여름 몸을 사리지 않은 KDRT 활동에 현지 주민들은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주민들은 수제 머핀 등 먹거리와 기념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지역 주민은 한글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라고 적은 감사 손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KDRT와 함께 진화 작전을 수행한 미국 긴급구호대 대장은 ‘KDRT의 헌신과 지원에 감사하며 함께 일한 것은 영광이었다’며 감사장을 보냈다.

캐나다 언론도 KDRT 활동을 조명했다. 현지 방송사 CBC는 진화 작업에 나선 한국 대원들의 고충을 7월 29일 보도했다. 대원들이 진화 작업 후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교민들이 보내준 라면과 통조림 김치, 한국 과자 등을 먹으며 피로를 달래는 모습도 방송됐다. CBC는 한국과 미국 대원들의 협력을 소개하며 “한국전 동맹국들이 산불과 싸우기 위해 70년 만에 다시 뭉쳤다”고 했다.

KDRT는 산불 진화율 94% 달성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 전 오타와 소재 전쟁기념비를 방문해 한국전에 파병한 캐나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캐나다 외교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6·25전쟁 때 파병을 통해 도움을 줬고, 이번에 캐나다가 어려울 때는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해 도움을 줬다”며 감사를 전했다. 캐나다는 6·25전쟁에 2만 6,791명을 파병했다. 미국, 영국에 이은 3대 파병국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한국으로 복귀하는 대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우리 수송기를 깜짝 방문했다. 트뤼도 총리는 “가족을 떠나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와 우리 국민을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안전하게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기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KDRT 대원들은 한국 시각으로 8월 2일 오후 6시 45분 서울 공항에 도착했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위험한 현장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산불 진화 작업에 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사막화,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 증가로 긴급구호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하고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의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12일에는 외교부가 구호대원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KDRT 활동이 우리 정부가 해외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파견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 사례로 긴급구호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KDRT 대원들이 고온과 해충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장기간 고된 활동을 펼친 것을 격려했다. 타마라 모히니 주한 캐나다대사도 행사에 참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KDRT 사무국 총괄을 맡은 조현규 대원은 “현장에서 기후변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별 없이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마주한 현실임을 체감했다”며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홍수, 폭염 등 극단적 기후 현상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초국가적 공조와 KDRT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



격려 오찬 행사


KDRT 의료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민규 대원

정민규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의료지원팀 대원

KDRT 의료팀 역할의 이해

'쓰나미'라는 단어를 우리 뇌리에 각인시킨 재난이 있다.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또는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이라고 부르는 재난이 바로 그것이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해안 40㎞ 지점에서 발생한 초대형 해저지진은 모멘트 규모 9.1~9.3으로 21세기에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지진이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안긴 자연재해로 기록돼 있다. 당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5만 명 이상이 실종,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발생 시점도 박싱데이(Boxing Day)라 부르는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외국인 관광객도 9,000명가량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100m까지 치솟은 해일은 인도네시아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고 주변국인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 등을 강타하고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쳤다.

KDRT의 시작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규모의 원조와 지원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도 지원금과 구호대를 파견했다. 이 재난은 국제사회에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외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구호 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재난이 발생한 이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7년 3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같은 해 10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됐다. 우리나라도 해외 긴급구호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듬해인 2008년 법령 6조에 따라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업무개요/운영/국제협력의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이 수립됐다. 기본대책에는 KDRT 운영과 관련해,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다루기 어려운 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현재 '2022년도 제6차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KDRT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유관기관은 법령 및 기본대책에 근거해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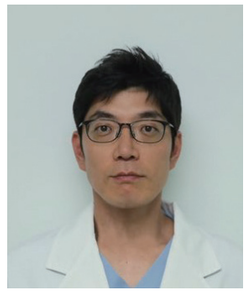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구호대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KDRT)란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 감소, 복구 또는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파견하는 긴급구호대를 말한다. KDRT는 사무국 역할을 맡은 코이카, 탐색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소방청 산하 중앙119구조본부의 KDRT 구조팀, 의료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KDRT 의료팀으로 구성돼 있다. 나아가 파견 결정 등의 중요 사안을 총괄하는 외교부와 해외긴급구호대가 재난국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 및 물류 이송을 지원하는 국방부의 공군까지 포함될 수 있다. KDRT는 특정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여러 유관기관이 정해진 틀에 맞춰 상황 발생(해외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해 재난 현장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해외 구호대이다. KDRT가 유기적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기관 사이에 각자 역량에 대한 이해도와 상황 공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군 수송기 1대에 실을 수 있는 물류량이 20t인데 구조팀이나 의료팀이 국제인 ▶▶

▶ 증 기준에 맞춰 놓은 물류량이 25t이라면 나머지 5t에 대한 물류는 현장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현장(공항)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전협의를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해결된다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KDRT의 우수성

해외에서 활동하는 구호대는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인증을 받는다. 선의로 시작된 KDRT를 포함한 각국의 해외 구호대는 UN 산하 기구에서 통제하는 국제인증을 순차적으로 획득했다. 우리나라 KDRT 구조팀은 UN INSARAG(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의 Heavy 등급을 2011년에 획득하고 2016년과 2023년 2회에 걸쳐 재인증에 성공했다. KDRT 의료팀은 WHO EMT(Emergency Medical Team)의 Type 1(Fixed) 등급을 2022년에 처음 획득했다. WHO EMT Type 1 등급 획득의 의의는 무엇보다 우리 구조팀과 의료팀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 구호대가 국제인증을 받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재난이 발생한 피해국에서도 등급을 획득한 구조팀 또는 의료팀이 아니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사실 지원을 거부한다기보다는 우선 지원을 요청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피해국 정부가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하느냐, 피해국이 수교하고 있는 각국 정부에 바로 지원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 등급을 획득한 구조팀과 의료팀이 우선순위로 먼저 지원을 가고 재난국의 정보 등도 공유된다. KDRT 의료팀의 EMT 수검인증을 준비하고 진행한 실무자로서 수검인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인증이 시작된 배경부터 알아야 한다. WHO EMT 수검인증이 시작된 계기는 2010년의 아이티 재난과 2011년의 남수단 난민캠프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다. 의료지원을 나간 응급의료팀이 콜레라와 E형 간염을 유행시켜 아이티에서 9,000명 이상, 남수단 난민캠프에서 24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응급의료팀에 대한 원칙, 기준, 용어통일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현재의 EMT 검증 과정에 이르렀다. 인증 시작의 계기가 이렇다 보니 의료팀 수검인증은 단순히 의료 수준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X-ray 장비, 수술기구 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물류의 운영, 폐기물에 대한 처리, 사회적 약자(장애인·어린이·임신부 등)에 대한 배려, 위생시설, 파견된 대원의 건강관리(숙영지·휴게공간·샤워시설 등), 전력보급 장치 및 전문인력(전기기사) 보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검 평가가 진행된다. 1년 전 수검인증 평가 때 인증단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란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인증 평가는 높은 수준의 진료를, 재난 현장이라는 황무지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정민규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의료지원팀 대원

이력사항 보건복지부 울산검역소에서 전염병 매개체 관리, 선박 검역 및 위생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21년부터 해외의료지원팀에서 근무하며 KDRT 의료팀 소속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KDRT 의료팀의 WHO TYPE 1 등급 획득 인증을 주관했다.

의사, 간호사만으로는 KDRT 의료팀이 운영될 수 없다. 전기 전문가, 급수 전문가, 폐기물 전문가, 방역 전문가 등 소위 '의료인'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있어야만 완전한 KDRT 의료팀이 될 수 있다.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재해국에 실질적인 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 기간 우리 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더욱 그럴 것이다.

KDRT ONE TEAM

현재 WHO EMT 등급 획득에 성공한 KDRT 의료팀은 WHO EMT 서태평양지부로 편성됐고, 국립중앙의료원 해외의료지원팀은 EMT 사무국과 소통하는 콘택트 포인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EMT와 소통함으로써 KDRT 의료팀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제인증'은 예산만 있다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의 '피, 땀, 눈물'을 갈아 넣어야만 얻을 수 있다. 올해 Heavy 등급을 획득한 구조팀조차도 각 지역에서 유능한 인력들을 차출해 등급 분류 TF팀을 꾸리고 1년 6개월간 준비한 끝에 '재인증'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쉬운 게 아니다. KDRT 의료팀도 2017년 WHO EMT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5년 만에 겨우 인증에 성공했다.

'KDRT ONE TEAM!' 사실 이 구호는 WHO EMT 수검인증 획득 후에 축하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것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을 아우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인증 획득을 위해 개인의 휴일, 휴가도 포기하면서 훈련에 정진했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사소하게는 팀원 간, 대원 간, 직종 간 갈등, 나아가 의료반과 운영반의 갈등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엔 인증에 성공한 팀원들을 위한 구호였다.

이제는 'KDRT ONE TEAM!' 구호가 의료팀에 국한되지 않고 KDRT의 이름을 달고 있는 모두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구호가 되길 희망한다. K



유기종 코이카 국민소통센터장

“FGI와 대고객 직접 소통 채널로 고객 만족도 높여”

고객 직접 소통 방식의 하나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많이 실시한다. 코이카에서도 많은 FGI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FGI의 정확한 개념과 방식을 인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가자 또한 FGI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소그룹 단위의 심층면접 방식, FGI

FGI는 집단 심층면접법이다. 소수 그룹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정보를 찾아내는 면접조사 방식이다. 6~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소그룹을 구성해 면접원(사회자)의 진행하에 조사 목적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해 자료를 수집한다. 일반적으로 6명이 적당하다.

FGI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문조사와 구별되고, 사회자와 응답자 간에 일대일 질의가 아닌 여러 명의 대상자가 함께 참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개별면접조사와 구별된다.

FGI는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를 한곳에 모아 사회자에 의한 좌담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사회자는 사전에 조사 목적에 맞는 질문의 요지와 순서를 적은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연구자와 협의 후 내용을 확정하며, 심층면접을 진행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한다.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지만 가급적 사전 질문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하거나 영상 촬영 등을 진행하고 심층면접이 끝나면 녹음 또는 촬영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 조사보고서 작업을 진행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어

사회자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자는 편하게 주제 안에서 이야기하고 소극적인 참석자도 발언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에서 보면 가끔 FGI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사회자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자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FGI의 사회자는 면접조사의 면접원 역할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회자 선발과 참여가 꼭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FGI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된 만큼 해당 주제에 대한 집중 분석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단이라는 가림막 덕에 기존에 파악하기 어려운 진실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참석을 요청한 조사대상자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일대일 면접에 비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약하고 집단의 시각이 실제 현상보다 강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소통센터는 국내 사업수행 파트너를 대상으로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FGI 형식의 대고객 간담회를 지속 확대해 왔다. 특히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소통을 2022년에 기관장 3회, 이사·본부장 6회에서 2023년에는 기관장 5회, 이사·본부장 8회로 44% 확대 실시했다.

대고객 간담회에서 나온 고객 의견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즉각 조치가 가능한 단기 조치 사항과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장기 검토 사항으로 분류해서 개선을 검토한다. 조치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에 게시해 고객에게도 전달한다.

2022년의 경우 경영진 직접 소통에서 나온 의견 중 43건이 개선 완료됐고, 대표적인 개선 사항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술평가 방식의 비대면 전환 등이 있다. 실제로 의견 수렴을 통해 기술평가팀이 기술평가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입찰제안사들은 기존에 대면 방식에서 발생하던 편집 제본 비용이 절감돼 전체 누계 기준 연간 5억 4,000만 원의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다.

2023년의 경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된 경영진 대고객 간담회에서 총 227건의 고객 의견이 나왔고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10월 중에는 국민소통센터장이 주관하는 대고객 FGI가 총 8회 실시됐다. 경영진 간담회에서 소통 기회를 갖지 못한 부문별 파트너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해 전체 코이카 국내 사업수행 파트너의 의견을 누락 없이 듣고자 노력했다.



유기종
코이카 국민소통센터장

이력사항 Bain&Company 등 선진 컨설팅 기관에서 설문조사, 고객관리 등을 공부하고 금융 회사에서 고객만족, 고객채널관리, 업무개선 분야의 책임자를 역임했다. 2018년 말부터 코이카 국민소통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코이카 대국민서비스 향상, 대고객 업무 효율화를 주관했고, 비전공 실무자들을 위해 〈내 맘대로 요리하는 설문조사〉를 최근 출간했다.

소통 채널과 시스템으로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

이러한 노력으로 코이카는 2022년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고객 민원이 전년 대비 약 45% 감소했고, 기재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사업 부문 중 93.6%에서 기재부 목표점수를 달성했다. 2023년의 올해 평가는 전체 사업 부문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FGI를 진행하다 보면 고객들이 코이카에 말하고 싶은 의견은 많은데, 현장에서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고객들에게 코이카에서 갖추고 있는 각종 소통 채널, 대표적으로 VOC시스템상의 제안 코너인 국민제안방, 기업성장응답센터 등을 소개한다.

코이카는 현재 국민·고객 의견을 항시 수렴한다. 24시간 접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증명서를 포함해 3일 이내에 의견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수집된 의견은 전부 DB(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관리된다. 이로써 고객 불만과 고객 니즈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코이카는 2019년 통합 VOC시스템 구축 운영부터 2020년 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2021년 국민제안방 구축, 2023년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구축, 2024년 CRM 본격 운영 등을 통해 어느 공공기관보다 국민·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코이카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객 만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K

코이카-조달청 협력 사업

ODA 사업과 혁신제품이 일군 동반성장의 힘



조달의 날 세미나에 참석한 코이카

코이카와 조달청이 아름다운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코이카는 2021년 조달청의 국내 중소기업 혁신제품* 사용 기관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부터 혁신제품 해외진출 협의체 주요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코이카 47개 해외사무소 ODA 사업대상지에 필요한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사업대상지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코이카와 조달청의 혁신제품 해외진출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사업화, 추가 투자유치, 수출 연계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 초기 단계의 기술이 인정된 제품을 기술 전문가 집단을 통해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코이카 해외사무소와 중소기업의 윈윈

2021년 조달청 혁신 시제품 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코이카는 사업 참여 공공기관 중 최초로 해외사무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대상지 14개국에 혁신 시제품 해외실증 사업을 추진했다. 조달청이 국내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시범구매 제품 대금을 지원하고, 코이카가 혁신제품 운송에 필요한 물류비와 현지 해외실증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다. 코이카는 사업 참여 첫해인 2021년, 국내 레이저 전문 헬스케어 기업 라메디텍이 개발한 바늘 없는 '레이저 채혈기'를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ODA 사업대상지 9개국에 지원했다. 코이카 보건사업 지역 내 협력병원인 라오스 병원에서 레이저 채혈기 사용법을 시연하며 제품의 우수성과 사용 편리성, 안전성 등을 입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레이저 채혈기가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라메디텍은 2022년 CES 혁신기업, 2023년 코이카 해외 ODA 지원 중점기업에 선정되는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코이카는 2022년 LED 조명 전문기업 한국조명㈜의 살균&항바이러스 기능을 탑재한 LED 스탠드 램프를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하고 '코로나19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환경 지원'을 위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14개국 해외사무소에 혁신제품을 지원했다. 이 또한 수요에 따라 추가 구매 및 물류 지원이 이뤄졌다. 그 해 한국조명㈜은 조달청 혁신대회 금상을 수상하며 대내외에 널리 이름을 알렸다. ▶▶

2개 사 혁신제품, ODA 사업대상지 8개국에 지원

코이카는 조달청의 '2023년 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수요조사' 기간인 지난 6월 내부 평가제도를 통해 2개 사의 혁신제품을 선정했다. 투엠바이오㈜의 천연복합살충제(제품명 진뚝)와 브레인테크㈜의 요화학분석기(제품명 리코테)다.

투엠바이오㈜의 천연복합살충제는 천연복합 신소재를 이용한 해충방제 스펙트럼(섭식성·흡즙성·돌발해충·미소해충)을 갖는 충해관리용 자재다. 친환경 제품으로 품목 적합도가 우수하고 농업 분야 사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해외 환경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코이카는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을 통해 세계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작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작물 생산에 방해되는 병충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농업 환경을 개선해 줄 천연복합살충제를 시범구매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했다.

브레인테크㈜가 개발한 혁신제품 요화학분석기는 개인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소변검사, 활성산소검사, 요로감염검사 등을 통해 각종 성인질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 모닝터링 기기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1,350억 원(2021년 기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화학분석기를 선정했다. 요화학분석기는 분석기와 스마트폰을 연동한 건강체크 관리 및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 소변을 통해 10개 항목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30종의 질병을 조기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자가진단을 통한 질병 예방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코이카는 혁신제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사업 지역 내 주민들이 한결 높아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이카는 투엠바이오㈜와 브레인테크㈜ 제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8개국(볼리비아·스리랑카·알제리·에콰도르·우간다·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태국) 해외사무소에 각 제품을 350개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수요에 따라 추가 구매, 물류 지원,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해외 ODA 기업 진출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검토한다.



레이저 채혈기를 개발한 레이저 전문 헬스케어 기업 라메디텍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도 협력

코이카는 지난 9월 조달청 혁신 시제품 제도 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을 공동 론칭했다. 조달청은 그간 민간을 통해 코이카 협력 형태의 사업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받아 '공모형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코이카를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국내 5개 발전사, 혁신조달지원센터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다. 크게 발전사 공동 수요 발굴형, 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자체발굴 수원 지원형으로 구분한 프로그램 중 코이카는 개발협력 수요 연계형을 전담한다.

코이카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실적 축적을 위해 해외 수요별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 혁신 시제품 구매제도와 동일하게 제품 구매는 조달청이 지원한다.

코이카는 혁신제품 해외사무소 대상 수요조사, 시범 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제품 전달을 위한 물류비 지원, 시범 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코이카와 조달청은 앞으로도 이처럼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발전을 돕고, 해외 ODA 사업에 필요한 혁신제품을 사업대상지에 지원하는 발전적인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K

조달청 혁신조달 국무총리상 수상

코이카가 조달청 혁신조달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조달청 혁신시제품 사용 기관인 코이카는 2020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이동형 음압캐리어를 구매하여 몽골, 모잠비크, 볼리비아 등 9개국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혁신조달의 지평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9월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해외사무소 ODA 사업대상지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판로 개척·확대를 통한 동반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조달청 혁신조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코이카의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는 해외 사업지 실증을 통해 국내 혁신제품 기업의 제품 홍보 및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코이카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과 상생 실현하는 키워드 '나눔'



굿네이버스와 지역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펼친 코이카 부산사무소

코이카가 올해에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코이카는 지난 9월 코이카 본부가 있는 성남시 소속 공공기관 협의체(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잡월드·한국원자력안전재단)가 함께 탄소절감 실천 챌린지 '지구를 살리는 이 순간: ESG 챌린지'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ESG 챌린지는 참가자들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단 이용, 텀블러 사용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목표 탄소저감 수치에 도달하면 성남시의 공공기관들이 취약계층에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코이카는 ESG 챌린지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겨울 대비용 1인가구 전기매트(75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2020년에도 코이카는 성남시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와 추석맞이 식료품 세트 등을 지원하는 나눔활동을 펼친 바 있다.

코이카 부산사무소는 지난 6월과 9월에 각각 '굿네이버스', '한끼의식사기금'과 협력해 부산 내 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코이카 부산사무소는 지난 6월 굿네이버스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함께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67명에게 선풍기 67대를 전달해 더위를 대비하도록 했다. 또 9월에는 부산 지역 기반 NGO인 한끼의식사기금과 함께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영양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자리한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도 추석을 맞아 나눔활동에 동참했다.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은 한국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 영월군청, 영월교육지원청, 코웍스 등과 함께 영월 청렴클러스터를 결성했다. 지역 청렴문화 확산과 나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영월 청렴클러스터는 2020년 결성된 이후 매년 명절을 맞아 영월군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영월군 무릉도원면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층에 생필품과 송편 등을 전달하며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무릉도원면 마을 어르신들은 "매년 잊지 않고 맛있는 밑반찬과 송편, 생필품 선물꾸러미를 한아름 안고 찾아와 안부도 전하고 정겨운 마음을 나누며 정말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보낸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밖에도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은 2016년부터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영월장학회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K



성남시의 소속 공공기관 협의체-성남시청 ESG 챌린지 후속 사회공헌활동 전달식



제16회 서울ODA국제회의 단체 기념촬영

제16회 서울ODA국제회의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를 논하다

지난 9월 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제16회 서울ODA국제회의'가 열렸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을 비롯해 미국, 일본, 튀르키예 등 공여기관, 국제기구, 학계, 주한 외교단 등 330여 명이 참석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를 논했다.

특히 2015년 제70차 유엔(UN) 총회에서 결의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을 넘은 시기에 지구촌 공통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제를 다시금 점검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쟁과 난민의 증가, 식량과 공급망 위기 등 복합적으로 발생한 위기들이 그간의 국제개발협력 성과를 후퇴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로 인해 SDGs 달성에 대한 전망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데도 대부분 동의했다.

장원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복합위기로 글로벌 협력 또한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 개발 재원의 확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포용 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역시 환영사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력국과 공여국,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한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세계적 연대, 공평하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십, 부 ▶▶

담의 공유라는 개념을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가 미래 개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자로 나선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

공동의 도전과제 대응 속,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오전에 열린 첫 번째 세션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이 주제였다. 좌장을 맡은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역내 파트너십과 이해당사자 간 공동행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첫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는 전 세계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핵심 공급망의 중심이 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2022년 출범한 영국 국제개발전략의 4가지 핵심 주제를 소개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여성과 아이들의 잠재력 실현,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미래 보건 위협 리스크 감소였다. 개러스 위어 부대사는 "영국은 아주 기본적인 인류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다자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및 개발고문은 2021년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5개 원칙(Free&Open, Connected, Prosperous, Resilient, Secure)을 소개했다. 히스 코스그로브는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진다며 "빈곤, 불안, 기후변화, 공중보건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고, 어느 특정 국가가 혼자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해결의 진전을 위해서는 공동의 도전과제에 맞서 싸워야 하며, 파트너십을 통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한 닐로이 바네르지 유엔개발계획(UNDP) 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 다루살람 지역사무소장은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ODA 재정립을 위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찾고 솔루션을 제공해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다자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안보리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UNDP, 각종 국제기구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제개발에 관한 협력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차원의 연대

'지역적 복합위기와 혁신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은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 발표자들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하면서 지역적 파트너십을 정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지역협력 강화에 적용할 것인지 논의했다. 페드로 콘세이상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국장은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ement Report 2021/2022)〉를 인용해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더 악화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면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등 이례적인 전 지구적 변화와 정치적·사회적 양극화 등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새로운 불확실성이 정신건강 악화와도 연결돼 있음을 설명했다. 글로벌 차원의 연대를 강조한 그는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세상을 전환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국제사회가 협력해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튀르키예는 지역협력의 챔피언 국가"라고 서두를 연 라흐만 누르던 튀르키예 개발협력청(TIKA) 부청장은 양자협력, 다자협력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해를 입히지 말자, 지역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등 특정 원칙을 세우고 개발협력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말리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 협력 국가와의 굳건한 파트너십 아래 진행된 인도주의적 지원 사례들을 소개했다.

페테리스 우스톱스 EU 집행위원회 국제파트너십총국 중동·아시아·태평양 국장은 "EU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EU 회원국과 각종 집행기관, 공공개발은행 등이 포함된 '팀 유럽'과 함께 서로의 전문성과 자원, 노력을 규합 ▶▶

하고 공동의 구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부분보다 더 큰 합을 만들어내는 '팀 유럽식 접근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한정적 자원 안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돌파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파트너십의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로슬린 모라우타 글로벌펀드 이사회 의장은 "글로벌펀드는 2002년 출범 후 HIV, 결핵,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며 5,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면서 "더욱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건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파트너십이 위기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노력을 소개하며 각 정부, NGO 등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2000년 이후 말라리아 발병률과 사망률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포용적 파트너십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레이첼 까예야 세계개발센터(CGD)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상생과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미래'였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카를로스 하비에르 까스띨로 빼레즈 멕시코 국제개발협력청(AMEXCID) 기획평가국장은 최근 1년간 멕시코 국제개발협력청이 공여국으로서 진행한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농업인과 청년들을 지원한 사례로, 다른 정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멕시코 은행에서 수혜자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농업적·기술적 교육은 물론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주율이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토르마르블랑 룸반토빙 인도네시아 국제개발청(Indonesian AID) 청장은 "상생과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솔루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제3자 또는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또 "포용적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를 변화시키는 많은 것을 이뤄갈 수 있다"며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마지막 연사인 미네 요이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오가타 사다코 평화개발연구소장은 지난 몇십 년간 개발협력 동향이 크게 바뀌었다며 "복합적인 연쇄효과를 가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평적 협력과 다양한 주체들 간 연대를 형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상향식 협업'을 이야기하며, '인간안보'의 핵심이 연대에 기반한 재원 확보, 보호와 권리 신장의 결합, 지역사회 회복력 집중에 기반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모든 세션이 종료된 이후 홍석화 코이카 지역사업Ⅱ본부 이사는 폐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와 개발과제는 참여자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이 절실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인류 공동의 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제16회 서울ODA국제회의는 현재까지의 국제개발협력 노력을 점검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 사례를 공유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이 나아갈 향후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한국의 독특한 발전 경험을 활용해 다양한 개발협력 참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 부문과 함께하는 통합적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K



두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세 번째 세션의 좌장, 레이첼 까예야 세계개발센터(CGD) 연구위원

주요 채소작물 종자 가치사슬 강화 사업

고품질 종자 보급으로 우간다 농업생산성 강화

동아프리카의 우간다는 풍광이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해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린다. 강우량이 많은 데다 토지가 비옥해 농사짓기에도 좋은 환경을 가졌다. 2020년 기준으로 우간다 국내총생산(GDP)은 37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8조 원 수준이다. 이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4%에 이른다. 경제활동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만 농업생산성은 높지 않다. 농가의 평균 연소득은 우리 돈으로 100만 원에 못 미친다. 코이카는 낮은 농업생산성의 원인 중 하나가 '종자'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주요 채소작물 종자 가치사슬 강화 사업'을 시작했다. 토마토·양파 등 농민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의 고유 종자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9년까지 총 8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1일에는 현지에서 종자 시범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의 첫 삽을 떴다.



종자 개발을 위한 우간다 국가작물자원연구소(NaCRRI)의 공사 현장

품질 보증된 종자 얻기 어려운 우간다 농민

코이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간다 채소 농가의 85%는 인증받지 않은 종자를 사용한다. 인증받은 종자는 비싸고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물의 종자는 물, 농지와 함께 농업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지역의 기후, 토양에 잘 적응하는 고품질 종자를 심어야 더 많은 작물을 수월하게 수확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나서서 '인증 종자'를 관리하는 이유다.

우간다 농민들은 종자를 지역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중간상인이 주는 대로 사서 쓴다. 이때 종자의 정확한 품종은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신이 확보한 고구마 종자가 호박고구마인지 밤고구마인지도 모른 채 파종하는 것이다. 작물의 특성을 알지 못하니 재배에 알맞은 생육환경이나 취약한 병충해도 파악할 수 없다.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어렵다. 결국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우간다 정부, 종자 관리에 난항 겪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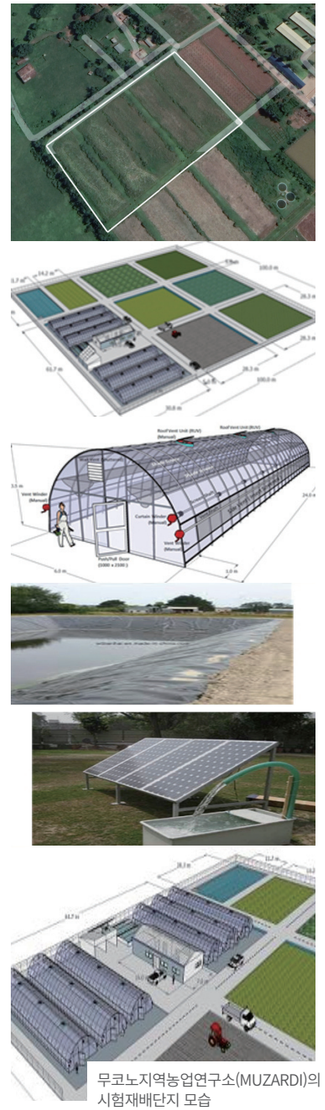
실제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우간다 농민은 연평균 2,546kg을 수확해 235만 6,000우간다 실링,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78만 원을 번다. 한국의 방울토마토 1kg 가격(약 5,000원)으로 계산하면 1,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유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 그나마 토마토 농가의 사정은 낫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양파 재배 농가의 연평균 수입은 285달러(약 37만 원), 양배추 265달러(약 34만 원), 고추 230달러(약 3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우간다 정부는 2018년 인증 종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종자의 품질을 국가가 인증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예산과 기술,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채소 5종 종자 개발, 농가에 보급할 것

코이카는 우간다에서 지난해부터 종자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고품질의 채소 종자를 개발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을 늘리고 나아가 국민 영양상태 개선, 국가 식량안보 증진을 목표로 한다.

2021년 3월 코이카 조사단은 우간다 정부와 주요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영세농 소득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작물 종자를 선정했다. 개발 중인 종자는 토마토·양파·양배추·고추·니카티 등 5종이다. 니카티는 우간다 사람들이 자주 먹는 나물류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작물별 생산성이 최소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자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도 구축한다. 우간다 국가작물자원연구소(NaCRRI), 국가종자검사소(NSL), 무코노지역농업연구소(MUZARDI), 루웨로 지역 등 4곳에 총 3만 8,000㎡(약 1만 1,500평) 규모의 시범재배단지를 세운다. 이곳에서는 토종 종자를 개발 연구하고 시범 재배할 예정이다. 단지 안에는 길이 25m, 폭 7m의 온실 총 33개 동을 건설한다. 물탱크, 창고, 저수지 등 부대시설도 함께 짓는다. 온실 디자인, 건축 공법은 모두 한국식을 따른다. 자재도 한국산업표준(KIS)을 준수한 한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코이카는 한국형 온실의 대량 보급이 향후 우리나라 온실 기술과 자재의 해외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코노지역농업연구소(MUZARDI)의 시험재배단지 모습

국내 초청연수 등으로 현지 기관 역량 높여

현지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고위급 정책·기술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현지에는 한국 전문가를 파견해 각종 노하우를 전수한다. 농가에는 종자와 생산 설비, 농자재 지원에 더해 재배 매뉴얼을 보급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우간다 국가종자검사소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 우간다 국가종자검사소는 종자인증과 품종보호권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관이다. ISTA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검사소 자체적으로 해외 품종을 수입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우간다에서 생산한 종자의 해외 수출도 가능해진다.

코이카는 2029년에 모든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성과물을 우간다 정부로 이양할 계획이다. 안지희 코이카 우간다사무소장은 "우량 종자 확보와 보급은 농가소득 증대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우간다 토종 채소 종자가 최초로 개발되고 전국에 보급되면 코이카 농촌개발 협력 사업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K

네팔 UNDP 과일 및 채소 가치사슬 개발 사업

수확-운송-판매까지 네팔 농업 원스톱 지원



코이카와 유엔개발계획의 협력 사업을 통해 네팔의 사업 지역 내 농가 수익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병풍처럼 두른 나라 네팔. 인구는 3,000만 명으로 적지 않지만, 국민 60% 이상이 농사를 짓는 대표적인 농업 국가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에 불과해 농업 인구 대비 경제 규모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네팔은 쌀, 고수, 양파, 감자 등 주요 농산품을 인도에서 수입한다. 지난해 기준 2,500억 네팔루피(약 25조 원) 규모의 농산품이 수입됐다. 농산품 수출 규모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공급망이다. 네팔 농민들이 키우고 수확한 농산물의 20%는 제값을 받지 못한 채 버려진다. 우선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할 공간이나 창고 시설이 충분치 않고, 제때 운송할 수단도 부족하다. 신선도를 유지할 냉장 시설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식탁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당량의 농산물이 손실되고 품질도 낮아진다. 그렇다 보니 농민 소득은 오르지 않고, 농촌 지역은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가치사슬 점검

네팔 농촌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2018년이다. 당시 코이카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손잡고 과일과 채소의 생산부터 수확, 운송,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돌입했다. 수도 카트만두가 속한 바그마티(Bagmati)주와 서쪽에 있는 간다키(Gandaki)주를 대상으로 하며 총 505만 달러(약 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코이카에 따르면, 이번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과일과 채소 수익은 약 15% 증가했다. 수확 후 손실량은 약 6% 줄었다. 혜택을 받은 네팔 농민은 총 1만 2,596명에 달한다. 코이카는 농업생산성 향상, 품목 다양화, 상업화를 통한 네팔 소농 소득증대를 목표로 ▲농산물 수확 후 손실 최소화 ▲최소가격 보장제를 통한 농산물 시장성 개선 ▲농민 역량 강화 등 농촌 공급망 개발 활동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각 마을 농산물 집하장에서 생산 작물을 취합한 후 시장으로 빠르게 운송해 신속하게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운송 차량으로 '농산물 앰뷸런스(Agri-Ambulance)' 9대를 지원했다. 또 지역마다 재고 작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12개의 냉장 창고를 지었다. 덕분에 농산물이 상할 염려 없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작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판매 단계에서는 네팔 정부와 협의 끝에 각 시에서 '최소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 순딸라(귤), 오크라 등 주요 채소와 과일 26종이 대상이다. 이를 테면 양배추의 시장 가격이 1kg당 5루피(약 500원)로 하락했다면, 농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1kg당 8루피(약 800원)의 최소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코이카는 지역마다 농산물 최소가격 보장을 위한 대형 가격판을 설치하고 종이 팸플릿을 만들어 보급했다.

> 이 사업을 통해 과일과 채소 수익은 약 15% 증가했다. 수확 후 손실량은 약 6% 줄고, 1만 2,596명의 네팔 농민이 사업 혜택을 받았다.

돈 벌러 외국 나갔던 주민들 귀환

공급망 구축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농민들의 역량 강화다. 코이카는 유엔개발계획과 함께한 동 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온 귀환노동자가 농업기업가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항은 농업 설비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이다.

산트 바하두르(Sant Bahadur) 씨는 2년 전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했다가 이제는 다시 가족 곁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유소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였다. 우연한 기회에 재정착 사업의 역량 강화 지원을 받아 현재 아내와 함께 농장을 가꾸고 있다. 그는 "양배추, 콜리플라워, 당근 등을 기르고 있는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에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코이카 지원을 통해 유기농 농약 제조법과 수확 후 손실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얻었으며, 농장 인근의 작은 축사에서 버팔로 2마리를 키우며 천연 비료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재배 방법을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을 통해 약 50명의 주민이 고향에 정착해 농업 기업가로 성장했다.

공무헌 코이카 네팔사무소장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차별점"이라며 "사업 추진 시 네팔 정부가 제안하고 직접 운영하는 활동 위주로 설계되어 앞으로도 높은 지속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네팔 농업부 차관은 "성공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코이카와 유엔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했고 협동조합과 농부들의 열의가 모인 결과"라며 "해당 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업 사업 사례로 꼽히며, 한국과 협업하며 얻은 교훈을 네팔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K



사업 종료보고회 기념사진



요르단 내 난민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건립을 추진한 코이카

요르단 시리아 난민 밀집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3개 학교 건립 사업

‘난민을 품은 땅’ 요르단에 심은 희망과 상생의 씨앗

매년 6월 20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구촌 인구의 1%가 넘는 약 1억 명 이상(2022년 5월 기준)이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났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1,130만 명으로 집계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난민의 95%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러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요르단에서 실시한 난민 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다.

개발도상국 요르단, 시리아 난민을 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어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국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9년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 주관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글로벌난민포럼(GRF)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23개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은 난민 보호를 위해 어떤 계획을 이행할 것인지 공약을 내세웠다. 코이카도 ‘난민 상황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와 손잡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이카는 공약 이전인 2016년부터 유엔이 설정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인 사람·평화·번영·환경·파트너십(5P)을 중심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전개했고, 같은 선상에서 2017년부터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아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힘써 왔다. 요르단은 중동 내 장기간 분쟁을 겪어온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과 이웃한 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 4,270달러(2020년 기준)의 개발도상국이다. 분쟁 국가들과 접해 있다 보니 1,020만 명인 자국 인구 대비 난민 인구가 레바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 중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유엔난민기구와 요르단 정부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발생한 680만 명의 난민 중 130만 명 이상(아동 약 32만 명 추산)이 요르단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요르단 전체 인구의 12.7%에 달하는 숫자다.

요르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 원조를 받는 국가이기에 난민을 위한 재정 지출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난민 지원 여력이 부족할수록 그 영향이 난민들, 특히 난민 집단 내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코이카는 타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난민의 일자리와 생계 분야를 중점으로 5년간(2019~2023) 총 5,0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이카, 요르단 난민 밀집 지역 3곳에 학교 건립

코이카는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이 가장 많이 밀집한 이르비드, 자르카, 마프락 세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는 ‘요르단 시리아 난민 밀집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3개 학교 건립 사업(2017~2022)’을 진행했다. 난민 밀집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초 교육의 경우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요르단 정부의 권고인 27명보다 두 배가 훌쩍 넘는 60여 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학생 수 문제로 요르단 아동은 오전, 난민 아동은 오후로 나눠 2부제로 임시 운영할 만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요르단 전체 학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 수 과밀은 물론 학교의 45%가 운동장이 없었고 35%가 화장실이 부족했다. 이에 코이카는 요르단 공립학교 중 최상의 교육 환경을 갖춘 학교를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컴퓨터실, 과학실, 미술실, 운동장을 조성하고 책상, 의자, 과학실험도구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9월에는 이르비드, 마프락 지역에 두 개 학교가 먼저 개교하며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코이카는 새로 개교한 두 개 학교의 운영 기준을 새로 세웠다. 요르단 내 난민 밀집 지역 학교들에서 운영 중인 2부제 수업 대신, 학급당 학생 수를 36명으로 조정해 수용 인원을 늘렸다. 이로써 요르단 아이들과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수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시리아 난민 아동을 포함해 총 2,470명의 아이들이 새로 문을 연 두 개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있으며, 자르카 지역 학교까지 개교하면 수혜 아동 수가 3,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코이카가 설립한 세 학교 전체 정원의 40%를 난민 아동의 자리로 남겨두고 있다.

건강한 삶,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지원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촌은 유동인구가 많고 위생 상태가 열악해 아동들이 호흡기 질환과 설사 등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코이카는 난민 보건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유니세프와 함께 요르단 전역의 시리아 난민 아동의 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UNICEF 요르단 아동청소년 보건, 보호, 교육 향상 사업(2017~2020)’을 전개하고 이 기간 동안 요르단 보건부, 교육부와 함께 총 7만 8,000명의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보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등교한 아동들에게 손씻기와 방역수칙 등을 교육하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같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백신을 무료 접종했다.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다. 학교 내 상수도시설을 정비해 아동들이 학교에서라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당시 요르단 내에서 학교를 매개로 난민 아동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원조 사업은 코이카가 최초였다.

> 난민 지원 여력이 부족할수록 그 영향이 난민들, 특히 난민 집단 내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UNHCR, 코이카 난민 지원 사업의 든든한 협력 파트너

코이카의 난민 관련 사업에서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UNHCR이다. 194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창설된 UNHCR은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 해결의 임무를 부여받은 국제기구다. 코이카는 2014년부터 UNHCR과 함께 난민 및 국내 피난민 재정착 지원, 난민 수용국의 사회통합 기여, 난민의 일자리 및 생계 지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난민 아동(여아)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사업(2017~2019)’, ‘소말리아 난민, 국내 피난민, 수용 공동체 통합 및 자립성 강화 사업(2019~2022)’ 등의 개발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했으며, 2021년에는 ‘에콰도르 난민 및 취약계층, 수용공동체 대상 통합 및 보호 사업(2021~2024)’, 2022년에는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 및 수용공동체 지원 사업(2022~2025)’을 시작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은 주로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이뤄졌던 사업으로 코이카와 UNHCR이 첫 중동지역 협력사업을 함께하여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코이카와 UNHCR은 국제기구 본부, 코이카 본부 간 다자협력 전문가 파견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 8개 국제기구와 세계 곳곳의 국가, 지역, 필드 사무소에 다자협력 전문가를 파견하는 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코이카의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K



사진 출처: 코이카 유튜브

“새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래요”
샤헤드 시리아 난민 아동·14세

“제가 다니는 마프락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교실과 컴퓨터실이에요.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점수를 매기라면 1,000점을 주고 싶어요. 새로운 학교는 정말 조용하고 책상도 편해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와 수학을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예전 학교는 학생들이 많아 정신이 없었거든요. 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정신과의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저는 한국의 BTS와 블랙핑크를 알고요. 코이카가 학교와 보건시설을 지어준 것도 알아요. 또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모든 난민을 돕고 있다는 것도요.”



네팔기술혁신센터 준공식(NTIC)에 참석해 내부 연구실을 둘러보고 있는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

네팔 인프라 구축 ODA 사업

통합적 지역개발 위한 교육·보건·환경 삼각 지원

네팔 인구는 약 3,000만 명이지만, 대학은 현재 9개에 불과하다. 대학 등록률은 26%로, 입학 허가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교육의 질에도 보완이 필요해 고등교육을 원하는 네팔 학생 중에는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 부족이다. 네팔 대학에서는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리서치 기회가 매우 드문 편이다.

코이카는 네팔 카트만두대학교에 R&D센터를 건립하고 기술개발 프로그램 개설 사업을 2016년부터 진행해왔다. 올해까지 총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투입한 대규모 사업이다. 네팔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 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네팔 과학기술 분야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아울러 농촌과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학 분야 전문 인력을 키워라"

지난 10월 11일에는 네팔 카트만두대학교에서 네팔기술혁신센터(Nepal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NTIC) 준공식이 열렸다. NTIC는 동결건조기와 차세대 유전자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네팔에서 최초로 '2등급 생물안전시설' 인증을 받아 맞춤형 결핵 치료를 위한 바이러스 연구도 가능하다.

코이카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NTIC를 설립하고 센터에서 에너지, 보건, 농업 분야 등 7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먼저 센터에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운영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창업보육 프로그램으로 16개 스타트업을 발굴했고, 일부 기업은 이미 매출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NTIC 준공식에 참석한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네팔기술혁신센터는 과학 연구와 혁신, 기술 융합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기회"라며 "내년 한국-네팔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의료 인프라 지원, 환자수 10배 증가

과학기술 분야에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코이카 네팔사무소는 박타푸르에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이카는 지난해부터 박타푸르 취약 지역의 빈곤층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을 시작해 2027년까지 950만 달러 규모로 이 지역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1차사업 성격이라 할 수 있는 한국-네팔 친선병원(약칭: 한네 친선병원)은 코이카의 134만 달러 무상원조로 2009년 개원했다. 개원 당시 연간 1만 6,800명 수준의 내원 환자가 올해 15만 5,000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한네 친선병원은 지방정부 지원을 받은 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컴퓨터단층촬영(CT)실, 인공투석실, 혈액투석실 등을 갖춰 타 지역 병원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덕분에 2017년 이 병원은 현지 '의료보험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박타푸르 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은 ▲최신 의료장비 및 병원 건축기법이 적용된 병원 건물 신축 ▲병원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병원 감염관리 매뉴얼 수립 ▲모자 보건 및 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위한 최신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건립하는 2차 병원은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시작해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2차 병원은 지상 4층과 지하주차장 1개 층으로 120여 개의 병상 규모다. 모자보건센터와 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네 친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받는 환자



포카라시의 폐기물 관리를 위해 힘쓰는 페트병 재자원화 기업인 히말라얀 라이프 플라스틱(Himalayan Life Plastics). 히말라얀 라이프 플라스틱은 코이카의 포카라 사업 관련 친환경 스타트업의 멘토 역할을 하며, 코이카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 배경: Himalayan Life Plastics)

'그린 ODA' 포카라를 친환경 도시로

코이카가 네팔에 ODA 사업으로 지원한 규모는 총 1억 8,864만 달러에 이른다. 1995년 6월 코이카 네팔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원한 액수다. 올해는 네팔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포카라에서 980만 달러(약 130억 원) 규모로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히말라야 등반의 관문인 포카라에서는 매일 평균 188t에 이르는 고형폐기물이 발생한다. 문제는 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단순 매립된다는 점이다. 네팔 정부는 2021년 9월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과 'GRID에 관한 카트만두 선언'을 채택해 환경 친화적, 회복탄력적, 포용적 개발을 네팔 개발협력 생태계의 핵심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코이카는 오는 2029년까지 폐기물 분리수거에서부터 재활용(리사이클), 새활용(업사이클)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스타트업의 양성을 지원하며,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의식주 생활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카라의 관광자원과 자원순환 경제를 접목한 '그린벤처존(Green Venture Zone)'을 구축해 친환경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과 관광객 대상 공공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그린벤처존이 포카라의 친환경 관광 명소로 부상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포카라시 정부의 폐기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시범마을을 조성해 폐기물 분리배출과 재활용 자원화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코이카는 "네팔이 현재의 최빈국 상황에서 벗어나서 2030년까지 중소득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그린 ODA뿐만 아니라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

캄보디아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 사업

지역농산물 잘만 활용하면 농민들은 '방긋' 학생들은 '쑥쑥'



지역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먹는 캄보디아 학생들

최근 기후위기, 전쟁 등으로 인류의 식량 안보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10월 13일(현지 시각) 발표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재해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재해로 인해 3조 8,000억 달러(약 5,100조 원) 규모의 농작물과 가축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 같은 손실은 재난에 취약한 중하위 소득 국가에 집중됐다. 이들 국가의 농업 GDP는 최대 15%까지 감소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재해로 인한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캄보디아는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나라다. 2022년 기준 GDP의 22%를 차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6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농업 발전 속도는 더디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농업을 우선 개발 분야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추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코이카는 캄보디아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맞아 코이카가 캄보디아에서 실행 중인 사업을 소개한다.

농가 소득, 초등학생 출석률 동시에 높인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영양 문제가 심각한 국가다. 특히 6~17세 학령기 아동의 영양 상태가 열악하다. 일본 국제개발구호재단(FIDR)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지방 학교 6~17세 아동의 36%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는 1979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식량원조 사업을 추진해왔다. 1999년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식 급식 사업을 운영했다. 2014년에는 '지역농산물 연계 학교급식(Home Grown School Feeding, HGSF)' 사업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

▶ 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2014년 2개 학교에서 파일럿 스터디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교육부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립했고, 이후 매년 30개교씩 대상을 확장해 2019년 기준 183개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코이카는 HGSF 사업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000만 달러(135억 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HGSF 사업에서 5년 동안 총 8,128만 t의 지역농산물이 제공되는데, 코이카는 이 중 3,463t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캄퐁츠낭, 뿌샷, 캄퐁톰 지역의 학생 총 6만 8,992명이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받는다.

HGSF 사업은 국제기구의 식량원조 식품을 조달하는 일반 학교급식 사업에 비해 영양과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1인 한 끼 식사당 약 0.055달러(약 75원) 저렴하며, 통조림 20g, 완두콩 10g을 제공할 금액으로 생선·고기·달걀 30g, 신선한 채소 50g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면 학생의 결석률이 감소하고 학습 집중도도 높아진다. 지역 소농과 식자재 공급자들은 물가 변동, 자연재해 등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해 수입이 증가한다.

코이카 지원금은 지역 식재료 구입 외에도 급식 인프라 지원, 사업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에 사용된다. 화로, 재료 저장고 같은 큰 시설부터 냄비, 주걱, 국자, 식판 등 조리·배식에 필요한 도구를 각 학교 사정에 맞게 지원한다. 식품 위생과 안전, 요리법 등에 대한 교육 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코이카는 이 밖에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절차가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수혜자들, HGSF 효과에 '매우 긍정적'

지난 5월 WFP는 코이카의 HGSF 프로그램 지원 효과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거의 모든 가구(99.7%)가 '자녀가 매일 음식을 받는 등 HGSF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HGSF의 혜택은 아동의 성별, 가구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수혜자에게 균등하게 돌아갔다. WFP는 "HGSF는 지역사회의 교육·영양에 대한 요구와 관련이 높다"며 "가정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낼 동기를 제공해 출석률을 높이고 중퇴자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아동에게 더욱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 대부분(98%)이 'HGSF로 가계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식자재 공급업체의 94.9%는 'HGSF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부와 지역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HGSF 덕분에 자신의 역할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주정부 교육청소년체육청 등 일부 지방 이해관계자들은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요청했다. 코이카는 이에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에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이 WFP 직원들과 학교급식 경영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정부 부처 간의 협조 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항 추온 나론(Hang Chuon Naron)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학교급식 정책과 HGSF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다각적인 지원으로 캄보디아가 교육과 영양,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HGSF 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캄보디아 농가

서북 지역에서 시작한 평화마을 구축 사업

코이카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캄보디아 서북 지역에서 '농촌 종합개발을 위한 평화마을 구축 사업'을 펼친다. 대상 지역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50㎞ 떨어진 바탐방(Battambang), 반떼이 민쩌이(Banteay Meanchey), 파일린(Pailin)으로 이 3개 주를 포함한 서북 지역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에 속한다. 1970년대 내전의 중심지로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지뢰 매설량도 가장 많다. 3개 주의 지뢰 사상자 수가 캄보디아 전역 사상자의 40%를 차 ▶▶

지할 정도다. 코이카는 2026년까지 1,000만 달러(약 135억 원)를 투입해 이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캄보디아 농무부, 월드비전인터내셔널(WVI)과 공동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에서도 도움이 절실한 30개 마을을 선정했다. 코이카는 우선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자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들은 마을개발위원회를 꾸리는데 이때 위원회에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이 포함된다. 코이카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 개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식수와 위생, 농업 등에 관한 기초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기본적인 행정 능력과 금융 이해도, 디지털 문해력, 성평등 의식 등을 기를 수 있는 교육도 한다. 이후 주민들은 생활·농업용수 시설, 화장실, 마을회관, 표지판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자치 역량을 기른다. 예산은 마을당 약 6만 5,000달러(약 8,800만 원)이다.



'농촌 종합개발을 위한 평화마을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모습

빈곤 지역에 만드는 '지속 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농업생산성을 높여 지역민의 소득증대도 돕는다. 서북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로 생계를 이어간다. 벼, 옥수수 등을 주로 재배한다. 바탐방주의 경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전체의 11%)의 쌀을 생산하는 중요 지역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사 노하우가 부족해 투입하는 자원과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고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물관리가 안 돼 홍수 피해를 자주 입는다. 몇몇 마을은 1년에 3개월 이상 농지가 침수될 정도다. 현지에는 농사 기술을 배울 곳도 마땅치 않다.

코이카는 농업기술지도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하거나 원격 지도를 통해 농민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와 대학의 농업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 매년 농사 잠재력이 높은 농가 20곳을 시범 농가로 지정하고, 현지 환경에 맞춘 최적의 채소·과수 농법을 교육한다. 종자 선택과 육묘, 수확 등 전 과정을 자세히 알려준다. 인근 농가에서도 시범 농가를 방문해 이 과정을 배우고 농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범 농가를 비롯한 여러 농가에 관수 파이프, 스프링쿨러, 비료, 살충제 등 농업용 기자재를 제공한다.

코이카는 이 밖에도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펼친다. 농산물 운송시스템과 판로 개발, 우수농산물인증제(CamGAP) 시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지원 등을 실시한다. 농민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기술교육센터와 직업기술교육훈련원에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지방국립대 농과대학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여되고, 잠재적 지지자 그룹으로서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현준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장은 "농촌 개발은 코이카 국가 파트너십 전략의 핵심"이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전쟁이 치열했던 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

학위연수 사업 박사과정 연수생 3인 인터뷰

"한국 발전의 모든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2023년 코이카 학위연수 사업의 막이 올랐다. 코이카는 지난 8월 17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올해 학위연수 사업에 선발된 45개국 학위연수생 378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학위연수 사업은 코이카 글로벌 연수 사업(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 CIAT)의 일환으로, 자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인재들의 한국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도상국 출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부합하는 학위 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아시아 젠더리더십,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글로벌 보건안보, 디지털 혁신 등 총 24개 과정으로 꾸려졌다. 선발된 378명 중 372명은 석사학위 과정(17개월)을, 나머지 6명은 박사학위 과정(36개월)을 공부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국내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에 참여하고 국내 전문가와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이카 학위연수 사업은 매년 뛰어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사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15년 사업에 선발돼 아주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짐바브웨 산업통상부 소속 경제 전문가인 켄스 마후니(Kennth Mahuni)는 학위 논문을 통해 2021년 국제경제학회(IEA)가 주관하는 '아마르티아 센'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홍석화 코이카 지역사업II 본부 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코이카의 전략과제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 ▶▶



이름: 케네디 멘사 오세이
(Kennedy Mensah Oseai)
국적: 가나
소속: Tamale Teaching Hospital



이름: 다닉 이가 파시스카
(Danik Iga Prasiska)
국적: 인도네시아
소속: Regional Health Office of Nganjuk

▶ 인재를 대상으로 학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적 자원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연수생들이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학술 연구에 참여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보건안보' 박사과정 학위연수생 3인을 만나다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 과정은 코이카 박사과정 중 보건 분야 최초로 2023년에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생물 테러와 같은 보건안보 위협에 대응할 보건안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이카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Q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나요?

케네디 멘사 오세이 가나의 타말리 티칭 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디렉터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국립혈액원 산하 혈액센터의 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개발연구대학에서 겸임 강사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다닉 이가 파시스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보건소인 지역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코이카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직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정부는 제가 한국에서 글로벌 보건안보 석사학위를 받은 것을 보고 코로나19 공공지원팀에 배치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중보건 자문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두르가 다타 차파게인 경력 초반에는 지역사회 단위의 작은 보건소에서 일차진료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예방접종도 하고 임산부와 노인들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이후 지역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지역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했으며 보건부로 자리를 옮겨 직전까지 보건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선임 공중보건 담당관으로 일했습니다.

Q 학위연수 사업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케네디 멘사 오세이 코이카가 가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감염병 치료센터를 지을 때도 코이카가 여러 차례 지원해줬고, 물이 부족한 건기에 병원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탱크를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코이카에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위연수 사업은 코이카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가나의 모든 기관과 부처에 관련 홍보물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닉 이가 파시스카 코이카 학위연수 동문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이카 동문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예비 학생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만난 코이카 동문들의 권유로 이번 학위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석사과정에서 한국의 수준 높은 교육을 경험하기도 했고, 한국에는 실력이 뛰어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두르가 다타 차파게인 현재 직책상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한국의 보건 정책 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보건 시스템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세대학교에서 앞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쁩니다. ▶▶

Q 귀국 후 계획은?

케네디 멘사 오세이 가나는 세계보건총회(WHA) 회원국입니다. 저는 가나가 국제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습득한 지식을 가나의 다양한 공중보건 담당자를 양성하는 데도 활용해 우리나라가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닉 이가 파시스카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중보건 자문 전문가로 정책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코로나19 공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연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박사과정을 통해 연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돌아가면 국책 연구기관이나 국공립 대학에서 연구원과 강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두르가 다타 차파게인 지금처럼 정책 및 기획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보건 문제가 있습니다. 결핵이나 콜레라 같은 오래된 질병은 물론이고 뎅기열 등 새로운 질병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네팔에서 뎅기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네팔 사망 원인의 약 71%가 당뇨병, 고혈압, 암, 기타 심장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인 만큼 네팔 국민들이 이러한 건강 문제를 잘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Q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배우고 싶은 것은?

케네디 멘사 오세이 가나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각각 영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견뎌냈고, 두 나라 모두 가난했던 시기를 겪고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측면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름: 두르가 다타 차파게인
(Durga Datta Chapagain)
국적: 네팔
소속: Ministry of Health, Bagamati Province, Nepal

다닉 이가 파시스카 실험실 및 기술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동안 실험실 및 기술 업무를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싶은데, 제가 합류할 연구실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지 교수님과 상의해 보고 싶습니다.

두르가 다타 차파게인 수업 외에도 한국 문화와 다른 개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많은 나라가 개발 과정에서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문화를 잘 보전해 왔습니다. 제가 참여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관습과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K

숫자로 보는 코이카 글로벌 연수 사업(CIAT)

동창회 결성국(2023년)
57개국, 58개 동창회
연수과정 종료 후 연수생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유지

학업성취도(2022년)
4.76/5.0
학업성취도 지표는 2017년 이후 꾸준히 90점(4.53/5.0) 이상을 기록

학위취득률(2022년)
98.27%
학위 취득 후 승진율 및 부하직원 수, 인건비 구간 상승 등 긍정적 요소 증가

학위연수생 만족도(2022년)
95/100점
학위연수생들의 종합만족도는 95점대 수준으로 형성되며 높은 만족도 유지

누적 연수생 인원수(2022년)
96,560명
1963년 연간 870명에서 현재 연간 약 5,000명 이상 규모로 성장

코이카 리턴 프로그램

코이카와 함께 성장한 미래 리더들과의 만남

코이카는 코이카봉사단, 영프로페셔널(YP) 등으로 활동한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가 협력국에서 활동하며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협력국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이카의 리턴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두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라오스판 하림' 꿈꾸는 이재원 그린굿스 대표

회사명 그린굿스
주요 사업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양계 통합 솔루션

Q 코이카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코이카를 통해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키웠습니다.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1년가량 강의를 듣기도 했고, 2015년에는 라오스에서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코이카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Q 리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았나요?

코이카 관계자분들이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해 주신 덕분에 본 사업을 알게 됐는데,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및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이 소풍벤처스를 연결해주셔서 시드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투자도 받았습니다.

Q 그린굿스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굿파머스와 협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파머스는 우리 그린굿스에 위탁 양계(養鷄)를 맡겨주었고, 그린굿스는 병아리 관리부터 공급, 브랜딩까지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농 분들에게 일반 병아리보다 훨씬 질병에 강하고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면 전량 매수해서 브랜딩을 진행해 시장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씁니다. 병아리를 상시 유지·관리하는 일, 품종에 맞춰 좋은 사료를 연구·개발하는 일도 우리 그린굿스의 몫입니다.

Q 현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오스 정부에서도 우리 사업을 많이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양계 산업에 접근할 때 대부분 수익 창출에만 초점을 두지, 기초농산업을 키우는 데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준비한 물량이 부족해 상품 홍보를 잠시 멈췄을 정도로 현지 호응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런 경험을 발판 삼아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Q 그린굿스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매출을 늘리는 것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우리의 가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지키고 싶습니다. 또한 본부가 라오스 농림부에 입주하게 됐는데, 이에 발맞춰 라오스 기초농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라오스 양계 산업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 기술로 꿈을 실현하고, 현지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요리 교육 사업으로 세계 겨냥하는 장미지 어밀리티 대표

회사명 주식회사 어밀리티
주요 사업 글로벌 요리 교육 및 로컬푸드 사업을 주도하는 소셜벤처로 글로벌 요리 교육 사업, F&B 연구개발 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추진

Q 코이카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생 때 우연한 기회에 백병원에서 진행하는 보건 관련 코이카 초청연수 사업에 보조 매니저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연수생이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개발협력 사업에 매력을 느꼈고, 졸업하는 해에 월드프렌즈 봉사단으로 떠나고자 결심했습니다.

Q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해외 봉사단 활동 후 코이카 해외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초급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지원 업무를 맡았고 나중에는 성과관리로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당시 첫 출장이 쿠바와 엘살바도르였는데, 그때를 계기로 성과관리에 관심이 생겨 2020년에 상명대학교 국제개발평가센터에서 네팔, 말라위, 스리랑카 사업 성과관리&평가(M&E)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쉽지만 교수님의 응원을 받으며 센터 소속 전·현직 연구원들이 국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리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창업을 꿈꾸었습니다.

Q 리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았나요?

우리 아이디어를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즉 사업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 팀원들의 역량 강화 시간을 거쳐 쿠킹클래스를 여러 차례 기획했고, 매 클래스마다 세세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고객들의 반응(95%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리턴 멘토님들이 적극적으로 조언해주었고 추가로 외부 전문가의 멘토링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리턴 프로젝트로 출범하여 12월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를 통해 2021년 12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업 준비는 절대 쉽지 않았으나 초기 멤버들이 초석을 잘 다져주고 리턴 프로그램이 창업에 힘을 실어준 덕분에 어밀리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Q 어밀리티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요?

어밀리티의 주요 3가지 사업은 교육 사업, F&B 개발 사업, 콘텐츠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은 글로벌 요리 교육을 주축으로 로컬푸드 요리 교육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밀리티 소속의 한국 및 글로벌 강사들이 교육 주체가 되어 함께하고, 전 세계의 요리를 다룰 수 있는 날까지 무궁무진한 콘텐츠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기업 연구원 220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만족도 5점 중 4.98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F&B 개발 사업 부문은 지역 F&B 관광상품 컨설팅과 로컬푸드 관련 상품 개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창업 후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가 궁금합니다.

창업한 해에 한국중부발전 제4기 사회적경제기업가로 선정되었고 충남 다가족 다문화 축제 주요 주관사 공모 선정, 천안문화도시 4차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선정, 고용노동부 20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2021년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2022년에는 어밀리티 밀키트 제로웨이스트샵 프로젝트를 진행해 감사하게도 1,260인분이 완판되었습니다. 현재는 천안 로컬푸드 요리 교실 위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외에도 로컬푸드 요리 교육 사업(레시피 개발) 등을 진행했습니다.

Q 어밀리티의 계획과 목표를 알려주세요.

더욱 다양한 국가의 요리 강사를 양성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요리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글로벌 요리 교육 콘텐츠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지역 로컬푸드 사업도 위탁업을 넘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K

김석범 코이카 중동북아프리카 과장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직원들과 함께

2017년 3월 2일. 아프가니스탄에 첫발을 디딘 날이다. 비행기 상공에서 본 아프가니스탄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흙과 바위의 잿빛 나라였다.

나를 마중 나온 코이카 아프가니스탄사무소 직원들과 방탄차를 타고 수많은 인파를 지나 이동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왔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내가 생활하는 두꺼운 담장 안 컴파운드에서 고개를 들면, 〈연을 쫓는 아이들〉이란 책에 나왔듯이 하늘을 수놓은 연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테러 신호인가 싶어서 경계하며 숙소로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연'이 이곳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 수단인 걸 알고 나서는 햇빛을 쐬며 연날리기 시합을 종종 관전했다. 그러다 문득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에게 '연'은 테러 등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아 보였다. 마음껏 누리고, 많은 걸 경험할 시기에 '연날리기'가 유일한 낙이니. 코이카 직원이기 전에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곳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 사업'은 내가 코이카 아프가니스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가장 공들였던 일이다. 이곳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행히 사업을 통해 수도 카불에 설립된 '한-아프간 직업훈련원'을 졸업한 청년들은 해외 원조 기관이나 군부대 지원 관련 직업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와 헛간에서 숙식하며 직업훈련원 입소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었지만 자원과 시간의 제약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 향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청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

이슬람 국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점차 늘고 있다. 나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 당당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만난 바 있다. 그녀는 하자라족 여성으로, 하자라족은 아프가니스탄의 다수민족인 파슈툰족과는 외모가 조금 다르다. 그녀와는 코이카 아프가니스탄사무소에서 '난민 지역 식수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만나게 됐고, 사업과 연계한 마을 개발과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내가 기억하는 또 한 명의 여성은 테러와 관계가 있는 여성이다. 2017년 5월 31일 카불 독일대사관에서 발생한 테러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할 때 겪은 가장 큰 테러였다. 당시 1.5t의 폭탄을 실은 트럭이 폭발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침 출근 시간에 테러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출근하던 현지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코이카 사무소 미화 담당 아주머니의 남편도 이때 발생한 테러로 사망했다. 아주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을 혼자 키우며 가장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분이었다.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 가족을 돌보며 열심히 살고 있을 그분을 응원하고 싶다.

아프가니스탄의 남성들

에자둘라는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사무소를 지킨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아프간 사업 관계자, 정부 부처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많았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나는 에자둘라와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를 듣는 시간을 좋아했는데, 그 덕에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경호원 싸미와 파하드는 나의 안전을 지켜주던 고마운 사람들이다. 싸미는 대가족의 막내아들로 매우 침착한 친구였다. 독일대사관 앞 큰 폭탄 테러 때도, 직업훈련원 축사 테러 때도 나를 진정시키고 대피시켜 준 고마운 사람이다. 때때로 컴파운드 안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우리는 싸미의 집 안에 있는 화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파하드는 하자라족이라 한국 사람과 외모가 비슷했다. 그래서인지 조금 더 친숙하게 지냈던 것 같다. 싸미와 달리 생활이 다소 어려웠던 파하드는 고민이 많은 친구였다. 미래와 진로 이야기를 자주 나눴는데, 특히 이민에 대해 생각이 많았다. 다행히 현재 유럽 어느 국가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 조직은 다양한 국가 출신들로 이뤄지다 보니 어느 국가 또는 민족의 고유한 특성에 영향을 덜 받고 좀 더 유연한 문화를 가진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정무적 판단보다는 사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코이카가 진행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해서 유네스코(UNESCO)와 식량농업기구(FAO)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다. 유네스코는 교육, 문화, 과학 등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우리와 교육 분야의 직업훈련 사업을 위해 업무적 협의를 주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에 대한 이해, 아프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의 위험 요소, 아프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다면 어떻게 커리어를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 직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나누고 대안을 찾았다. 식량농업기구는 농업 관련 개발, 농촌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엔 내 조직으로, 농촌을 관리해야 했기에 다양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데 매우 능숙했다.

아프간 민족들

아프가니스탄은 다민족 국가이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파슈툰 42%, 타지크 27%, 하자라 9%, 그 밖에 우즈벡, 투르크 등등 소수민족이 많은 나라이다. 이는 다른 국가의 침입이 많았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타 국가의 침입이 많았다는 것은 지형적 위치 영향이 크다. 과거에 이곳은 실크로드 중간 지점이라 '말' 거래가 많았다고 한다. 실크로드를 지날 때 보통 아프가니스탄의 카불까지 1차로 이동하고 여기서 말을 새로 구해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 거래도 매우 잦았다고 한다. 세계 최대의 말 시장도 카불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프가니스탄의 3대 주요 민족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가장 큰 민족인 파슈툰은 아프가니스탄 전역, 파키스탄과 아프간 접경지대에 집중해서 6,000만 명이 살고 있다. 파키스탄에는 4,400만 명이나 살고 있다. 파슈툰은 이란계 민족으로 페르시아어와 유사한 파슈토어를 사용하고 타 민족보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 두 번째 큰 민족인 타지크는 아프간에 1,000만 명, 타지키스탄에 600만 명, 우즈벡에 1,000만 명이 거주하며 거의 3,000만 명에 달한다. 타지크족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흐마드 샤 마수드'로 국민적 영웅이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후 거침없이 전진했을 때 무자헤딘(아랍어로 성전에서 싸우는 전사) 지도자로 무장 투쟁을 한 사람이다. 탈레반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2001년 알 카에다 자살폭탄 테러로 암살당했다. 마지막으로 하자라 민족인데 9%가 넘으니 소수민족이라 하긴 어렵고 세 번째 다수 민족으로 보는 게 맞을 듯싶다. 아프간에 400만 명, 파키스탄에 100만 명, 이란에 50만 명 정도로 총 숫자는 600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작은 민족이라 볼 수 있다. 하자라족은 교육열이 높은 편이라 지식층이 많고 서방으로 이민하는 수도 많은 편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리를 보면 더욱 흥미롭다. 아프가니스탄 서쪽은 이란, 남쪽은 파키스탄과 인도, 동쪽에는 중국, 북쪽에는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위치해 있다. 각각의 민족은 주변 국가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데 파슈툰은 파키스탄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타지크는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하자라는 99%가 이슬람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란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처럼 다양한 민족과 역사를 지난 나라인 만큼 우리도 이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더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K



김석범
코이카 중동북아프리카 과장

이력사항 코이카에 2011년 입사해 2017~2018년 코이카 아프가니스탄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경영평가실, 동아프리카 부서를 거쳐 현재 중동북아프리카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KOICA NEWS 모아보기

AUGUST



제16회 서울ODA국제회의, 9월 7일 개최

코이카와 외교부가 9월 7일 롯데호텔 서울(서울 소공동 소재)에서 제16회 서울ODA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서울ODA국제회의는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개발협력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위기의 세계에서 글로벌 연대와 다각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개발협력', '지역적 복합위기와 혁신적 파트너십', '상생과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라는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등 코이카 임직원을 포함해 외교부 관계자, 각국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회의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코이카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행사를 개최했다. 코이카는 지난 8월 14일부터 닷새 동안 국제난민기구(UNHCR)가 제작한 인도주의 관련 영화 및 인도주의 현장 활동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며 인도주의의 의미를 되짚었다. 또 임직원들은 박경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비상대응국장의 인도주의 관련 강연을 들으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매년 8월 19일이다. 유엔(UN)이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유엔 본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사망한 인도주의 활동가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숭실대와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협력 MOU 체결

코이카와 숭실대학교가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숭실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등 재적생이 우리 정부의 '월드프렌즈코리아(WFK·대한민국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의 통합 브랜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학점을 인정받는다. 휴학 없이 한 학기 동안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최대 18학점을 인정받는다. 그동안 해외봉사에 참여한 대학생은 대부분 활동 기간에 상관없이 사회봉사 시수로 2~3학점가량만 인정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해외봉사 참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열린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자율 협약을 확산해 대학생들의 해외봉사 참여 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ESG 코이카 청년중기봉사단으로 선발된 숭실대학교 학생 5명이 최초로 학점인정을 받아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캄보디아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임시 정착촌 입주식 개최

코이카가 지난 8월 10일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정착촌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 입주식을 개최했다. 임시 정착촌 사업은 지난 3월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이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임시 재해복구 사업 기획 임무를 마친 뒤 체결한 코이카-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의 협의의사록에 따른 것이다.
이 협의의사록을 기반으로 코이카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우리나라 3개 NGO 단체들은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 정착촌 조성 및 이재민 지원 사업을 펼쳤다. 이 사업은 조기 재난복구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발굴한 최초의 사례다. 유례없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서 인명구조를 넘어 구호와 조기 복구 과정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피해국에서 협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은 총 500가구의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도시가 복구될 때까지 거주할 컨테이너 하우스 임시 정착촌이다. 규모는 약 4만㎡로 단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령별 아동 교육시설, 보건시설, 주민회관, 공용 세탁시설 등 공용 공간 및 필수 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SEPTEMBER



필리핀 지역 농축산물 홍보 워크숍 개최

코이카가 필리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코이카는 필리핀 북부 퀴리노주 주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 코이카는 퀴리노주에서 자란 육가공제품 6종, 제빵류 8종 및 생강차, 과일주스 등 총 20종의 가공품을 홍보하는 전시 부스를 설치했다. 또 판매처 확보를 위한 투자 포럼도 개최하는 등 퀴리노주 생산 농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처 확보에 적극 나섰다.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다. 코이카는 이날 워크숍을 통해 동남아시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Shopee'에 퀴리노주에서 생산된 식품 27종과 친환경 농축산품 19종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했다. 현지에서는 이 시범 판매가 9만 1,685페소(약 1,616달러) 규모의 부가 소득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코이카는 퀴리노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농축산물 가공센터(Q-LIFE) 설립을 지원한 바 있다.



포카라의 친환경 도시 만들기, 코이카가 나선다

코이카가 네팔 관광도시 포카라의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포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매년 많은 여행객이 찾지만 지금은 여행객들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코이카가 네팔에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모델을 도입하는 그린 ODA 사업을 추진한다. 코이카가 추진하는 '네팔 포카라시 리사이클/업사이클 플랫폼 및 친환경 시범 마을 구축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은 네팔에 자원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분리수거, 재활용부터 새활용(업사이클)까지 시민의식이 성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관광객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바순다라 공원(Basundhara Park)에 포카라의 관광자원과 자원순환 경제를 접목한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복합문화공간 '그린벤처존(GVZ, Green Venture Zone)'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공간에는 우리나라의 재활용 기술력과 시스템, 노하우가 접목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며 980만 달러가 투입된다.



국내 대기업 3사와 ESG 이니셔티브 MOU 체결

코이카가 국내 대기업들과 손잡았다. 코이카는 지난 9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SK에코플랜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 3사와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2024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을 기반으로 코이카와 3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에 기반한 ESG 전략으로 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코이카는 2022년부터 기업의 자본과 아이디어, 코이카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경험을 결합해 사업의 효과성을 배가하는 '코이카 플랫폼 ESG이니셔티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안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성공리에 마쳐

코이카가 2014년부터 추진한 '방글라데시 안질환 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방글라데시는 영양불균형, 대기오염 및 강한 자외선 등으로 안과 질환 발병률이 높은 지역으로, 불완전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당시 많은 안질환 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에 코이카는 방글라데시 다카 사바 지역을 중심으로 상급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국가 안보건 의료 시스템을 구성했다. 1997년 코이카 지원으로 설립됐던 한-방 친선병원은 안과 진료 특성화 병원으로 발전시켜 안질환 예방 및 치료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21년까지 약 6만 명(월 평균 약 2,300명)에 달하는 안질환 환자가 의료 혜택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방글라데시 지역 주민들이 기초 안과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도록 힘쓴 코이카는 방글라데시 국가 안보건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와 안과병원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도 지원해, 향후 중장기적인 방글라데시 안보건 정책 및 체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CTOBER



지진 복구 지원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 개촌식 열려

코이카가 지난 10월 19일(현지 시각)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자리한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의 개촌식을 개최했다.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500가구가 도시가 복구될 때까지 정착할 보금자리다. 이 마을은 코이카와 한국 3개 NGO 단체(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총 1,000만 달러 규모로 진행한 튀르키예 이재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튀르키예 지진 조기 복구를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과 임시정착촌 사업 협의의사록(R/D)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개촌식에는 이원익 주튀르키예 한국대사, 베키르 스트크 다그 하타이 부주지사 등 주요 인사와 우정 마을 입주 가정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4만㎡ 규모의 마을을 둘러보며 유치원과 학교, 공동 세탁실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정마을 입주민 대표 알탄 아틀란라르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받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주고 큰 재난 속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지원해준 형제의 나라 한국 정부와 친절한 한국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튀니지에서 호평받은 K-전자조달, 다음은 어디로?

코이카가 지난 10월 18일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국제조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정부 지원으로 추진된 튀니지의 전자조달 시스템(TUNEPS) 구축 사업 성과를 인근 국가들과 국제기구에 알리고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튀니지 정부는 2011년 재스민 혁명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면서 전자조달 시스템의 시범 구축을 코이카에 요청했다. 이에 코이카는 2011~2013년, 2019~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튀니지 정부와 튀니지 공공조달 시스템 시범 구축 및 확대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튀니지의 공공조달 시스템은 우리나라 전자조달 시스템(KONEPS)을 모델로 해 설계됐다. 2019년에 이 시스템이 모든 튀니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됐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입찰 건수도 전과 비교해 약 10,287%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선남국 주튀니지 한국대사와 이남순 코이카 튀니지사무소장을 비롯해 튀니지, 카메룬, 이집트 등 국가 조달 정책 담당자를 포함한 약 80명과 다양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세안 3개국 귀국연수생 지식공유 화상 컨퍼런스 개최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에 참여했던 귀국연수생들이 자국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 주목받고 있다.
코이카 귀국연수생 180여 명이 지난 10월 12일(현지 시각) '포스트 팬데믹 시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아세안 3국(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의 귀국연수생 동창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공유 컨퍼런스로, 국가별로 개발 현황과 동창회 차원의 사회공헌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아세안 역내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캄보디아 귀국연수생이자 현지 국립어린이병원 행정 부원장은 '캄보디아 산모들의 모유 수유 실천율'을 주제로 캄보디아 산모 6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생계를 위한 산모의 출산휴가 연장, 직장 내 인지 제고, 모유 수유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 개선 필요 사항을 제언했다. 뒤이어 필리핀 귀국연수생과 베트남 귀국연수생도 각각 필리핀 지역민들에게 진행한 필리핀 연수생 동창회의 사회공헌활동 결과와, 베트남 농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이카는 글로벌 연수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필리핀 3,600여 명, 캄보디아 2,800여 명, 베트남 5,200여 명의 귀국연수생을 배출했다. 일부 귀국연수생은 정부 요직에 진출해 친한 인사로 활동하며 국가 간 공공외교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안교육 사업으로 다시 찾은 타클로반의 미래

코이카가 지난 10월 6일(현지 시각)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필리핀 유네스코 타클로반 지역 학교 밖 소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의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2년 교육제도를 개편해 의무교육 기간을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빈곤가정 아동의 중등교육(7~10학년) 이수율이 31%에 그치고, 대안교육은 새로 바뀐 12년제 정규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청년들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이어 나가기 어려웠다. 이에 코이카가 2017년부터 6년간 필리핀 교육부 및 유네스코와 함께 2013년에 발생한 하이옌 태풍의 피해 지역인 동부 비사야, 타클로반 지역에서 대안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년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펼쳤다.
이 사업을 통해 12년제 정규 교육과정에 맞춘 ALS 중·고등 교육 커리큘럼(6종) 등을 개발했으며, 개발한 커리큘럼과 교재는 2018년부터 타클로반 지역에 시범 적용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커리큘럼과 교재는 올해부터 필리핀 전역으로 확대된다는 희소식도 전해졌다. 지난해 9월에는 사업의 일환으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접근성이 낮은 여성들을 위한 대안교육센터가 타클로반 지역에 건립되기도 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알마 루비 C. 토리오 필리핀 교육부 차관보는 "이 사업은 학교 밖 소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한 코이카-유네스코-필리핀 교육부 간 협력의 결실이다"라고 평가했다.

NOVEMBER



'춤추고, 달리는' ODA·SDGs 온라인 캠페인 진행

코이카 온라인 이벤트가 크게 주목받았다. 코이카는 지난 9~10월에 두 달 동안 ODA(공적개발원조)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소재로 한 온라인 캠페인을 벌여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온라인 캠페인은 크게 'ODA Song' 발표와 'SDGs 마라톤'으로 나눠 진행됐다. 'ODA Song'은 ODA를 통해 하나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코이카의 첫 발표 음원이다.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와 코이카 직원들의 목소리로 제작된 이 음원은 유튜브 등 SNS에 공개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댄스 챌린지와 뮤직비디오 영상 공모전도 함께 열어 'ODA Song'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SDGs 마라톤'은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가지 SDGs 목표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달리기 기록을 'LetsSDGs'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려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DGs 마라톤을 진행한 27일 동안(9월 19일~10월 15일) 총 2,300건(중복참여 포함)의 참여 인증 사진이 국내외 SNS에 게시됐다. 30만 회 이상의 노출과 공감도 받았다. SDGs 달성과 관련한 마라톤 스케치 영상은 위코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8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 개최

제18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해외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자 2006년 제정한 정부 포상이다. 올해는 9명의 봉사자가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우간다와 방글라데시에서 대장항문외과 분야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하는 데 앞장선 정형준 코이카 글로벌협력의사가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자동차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한 전덕준 코이카 해외봉사단원과 아프리카에서 안전한 식수 공급에 힘쓴 이동선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장이 선정됐다. 또 외교부장관 표창은 김지연 코이카 해외봉사단원과 노정숙(사)더멋진세상 의료팀장이, 코이카 이사장 표창은 유권욱 코이카 해외봉사단원과 최햇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이 받았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표창은 황영희 밀알복지재단 필리핀 세부 지부장과 김민정 굿네이버스 르완다 지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윤영 코이카 지역사업1 본부 이사,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이광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이사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이 참석해 수상자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파트너십 강화해 ODA 혁신을 꿈꾸다

코이카가 '2023년 개발협력주간'을 맞아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소통 행사를 연달아 개최하고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코이카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내외 공공·민간기업·투자사,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코이카 이노베이션데이' 행사를 열고 코이카와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성과 및 교훈 공유, 기업협력사업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패널토크 진행, 발표사업 제품 및 체험형 전시부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같은 날 코이카는 서울 강남구 소재 코이카 이노포트 세미나실과 이벤트홀 등에서 '2023 코이카 솔루션데이' 행사를 열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소셜벤처, 비영리기관, 예비창업자 등 민간 개발협력 분야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성과공유회와 선배 특강,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간의 경험을 폭넓게 교류하고 사업 확장 기회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오늘 행사는 개발협력 생태계 안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새로운 연대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자리로, 앞으로 코이카는 시민사회 참여자, 기업 관계자, 글로벌 인재 등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퀴노아연구소 짓고 볼리비아 농가 소득 높인다

코이카가 지난 11월 9일(현지 시각) 볼리비아 오루로 지역에서 '고원지역 농업 기계화 및 농민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지원사업' 착공식을 갖고 퀴노아 생산 농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이카는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500만 달러를 투입해 퀴노아를 특화하고 육성할 국립퀴노아연구소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퀴노아 종주국으로서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소 설립 후에는 기자재 및 생산용 농기계 지원, 연구 역량 강화 및 농업 기술 컨설팅 등의 세부 계획도 진행한다.
볼리비아는 전 세계 퀴노아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 농가의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이 볼리비아의 식량 안보와 성장기 유아·청소년의 영양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ECEMBER



김동호·손정미 코이카 신규 상임이사 선임

코이카가 4인의 상임이사 체제를 갖췄다. 코이카는 지난 12월 11일 김동호 코이카 전략경영처장과 손정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획조정실 글로벌협력관을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공모를 거쳐 선발된 코이카 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다. 김동호 이사는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코이카 창립 멤버로 입사한 이래 지역사업1본부장 및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리, 사업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부장, 에티오피아·에콰도르·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손정미 이사는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를 졸업하고 2001년 충북도청 국제통상과 주무관을 시작으로 투자유치과 외자유치팀장 등 공직생활 중 국제협력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0년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겸임교수, 글로벌통상학부 교수 등을 지냈다. 이로써 코이카는 지난 7월 취임한 장원삼 이사장 아래, 기존 이윤영·홍석화 이사와 신임 김동호, 손정미 이사까지 4인의 상임이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필리핀에 한국형 농기계현대화센터 구축

코이카가 지난 12월 7일(현지 시각) 필리핀 북부 누에바 에시아에서 농기계현대화센터(Agricultural Machinery Design and Prototyping Center, AMDPC) 준공식을 개최했다. 필리핀 최초의 농기계현대화센터인 AMDPC는 연면적 2,000㎡ 규모로, 농기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농기계 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이앙기, 파종기, 측정기 등 다양한 농기계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해, 작년 기준 2.67%로 저조했던 필리핀의 농업기계화 진척 비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기계현대화센터 준공식은 2027년까지 전개할 '필리핀 농기계현대화센터 구축 및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코이카는 이 사업을 통해 ▲관련 기자재 공급 및 설치 ▲농기계 연구개발 및 제조 전문인력 역량 강화 활동 등으로 필리핀의 농업 현대화와 농기계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나이지리아 민간 은행과 첫 ODA 사업 추진

코이카가 나이지리아 현지 은행과 공동으로 청년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나선다. 나이지리아 민간 파트너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기획하고 재원까지 유치한 첫 사례다. 코이카는 실업률이 33.7%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창업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나이지리아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인 프로비더스 은행과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실시되는 이 사업을 통해 코이카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디지털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한다. 청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 교육을 진행해 2,100여 개의 청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 스타트업에는 투자와 매출 확대를 위한 창업보육과 해외진출 지원도 지원한다. 프로비더스 은행은 5년간 최대 17만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기금을 조성해 코이카 육성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위코 5기와 함께한 화려한 '피날레 쇼'

코이카는 지난 12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위코(WeKO) 5기 성과공유회 '피날레 쇼(Finale Show)'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위코는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 ODA(공적개발원조)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다. 지난 7월 선발된 위코 5기는 지난 5개월간 빈곤,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ODA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카드뉴스, 숏폼 영상과 같은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작해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위코 5기는 'ODA를 통해 하나 되는 세상'을 노래한 글로벌 음원 'ODA Song' 발표를 시작으로 '댄스 챌린지', '전 세계 노래자랑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가상현실 메타버스 공간 '코이카 월드(KOICA World)' 개편에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등 ODA 지식 확산에도 함께했다. 이날에는 국내(개인·팀)와 글로벌(개인) 부문으로 나눠 우수 서포터즈 시상식도 마련했다. 국내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위코 5기 이승재(27) 씨는 "지난 5개월간 ODA와 SDGs를 홍보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코이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이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 최우수상 수상

코이카가 2023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준정부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코이카는 지난 12월 15일 서울시 중구의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과 국내·외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 지배구조, 환경 관련 경영을 혁신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코이카는 직원에 대한 안전 및 건강을 위한 활동, 여성 직원 및 여성 관리자 수 등 직원 다양성,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동반성장 전략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의 추진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같이 수상했다. 또 타 기관과 비교해 최근 3년의 정규직 직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동반성장 평가 등급 등의 항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KOICA
WORLD FRIENDS KOREA







*WFK KOICA-일반봉사단의 동티모르 현지 활동 사진입니다

더 나은 나 를 만납니다
더 나은 세계를 만납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이 찾아온 것은
협력국과 함께 번영하는 길

공공행정 교육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보건의료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여
협력국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과 협력국 주민이 함께 살아가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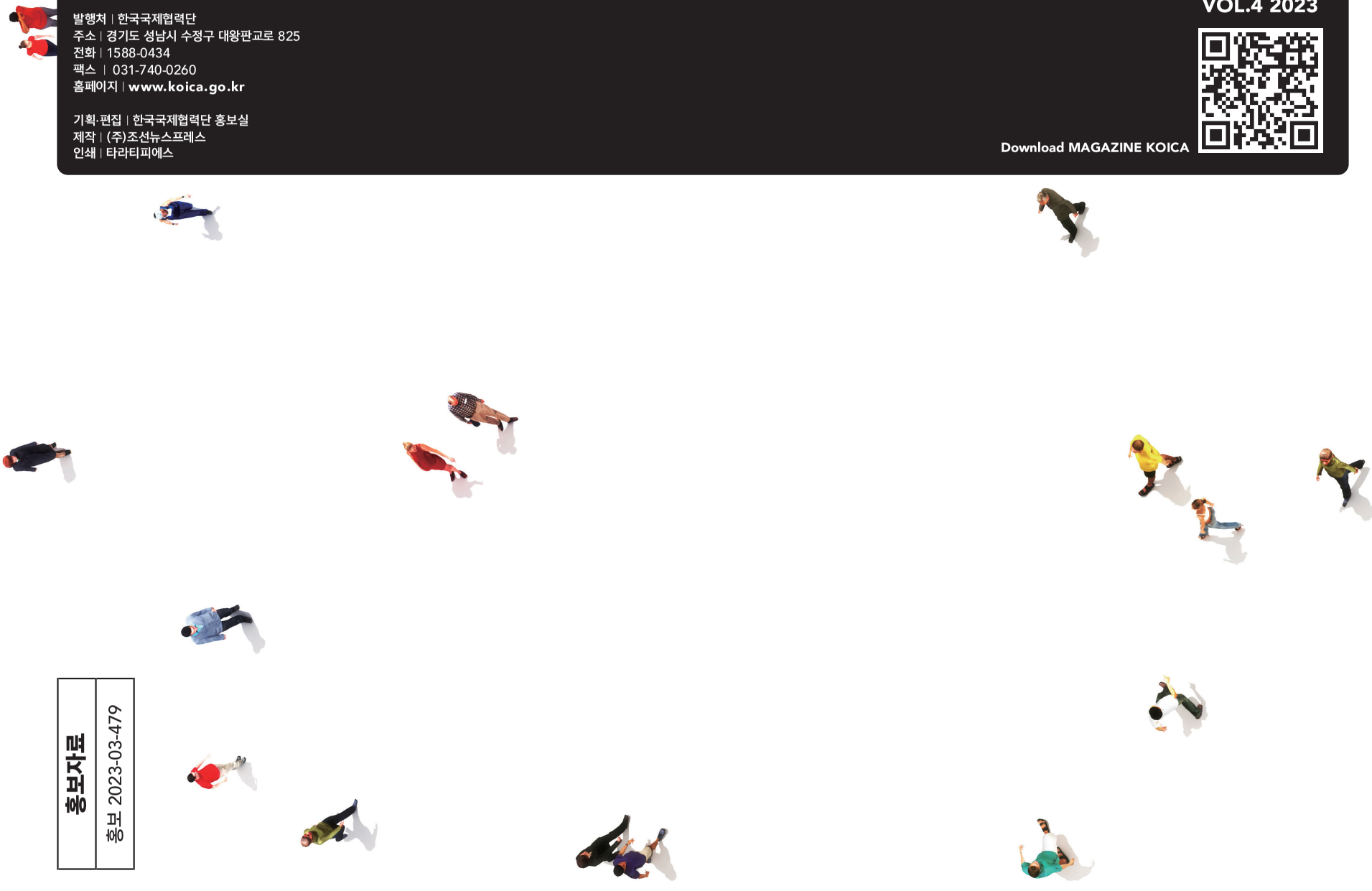
등록일자 | 2023년 12월 28일
발간등록번호 | 홍보 2023-03-479
발행일 | 2023년 12월 28일

발행처 |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 1588-0434
팩스 | 031-740-0260
홈페이지 | **www.koica.go.kr**

기획·편집 |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제작 |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MAGAZINE KOICA
VOL.4 2023

Download MAGAZINE KOICA



홍보자료
홍보 2023-03-479